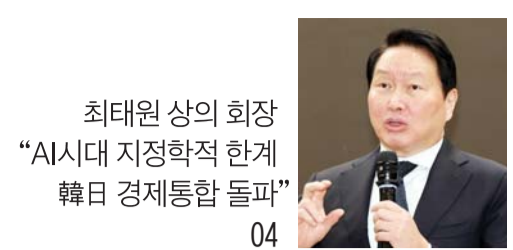


28일 Market Index			
코스피	6641.02	코스닥	1215.58
▲ (+25.99)		▼ (-10.60)	
금리 (2년)	3.530	환율 (원/달러)	1474.40
▲ (+0.038)		▲ (+1.90)	



집값 안내리는데 추가 하락 기대 매수·매도자 줄다리기 아파트 거래 소강상태

부동산 현장 르포

양도세 증가유예 종료 D-10

“급매물 위주로 소화됐고, 이제는 거래가 뜸하다.”
 “매도자는 가격을 크게 낮추지 않고, 매수자는 더 떨어지길 기다린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가 유예 종료(5월 9일)가 임박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현장에선 매도자와 매수자 간 줄다리가 한창이다. 주요 급매물이 대부분 소화되면서 거래가 소강상태다. 팔 사람은 이미 팔았고, 매수자는 추가 하락을 기대하며 관망하고 있어서다.
 실제 통계를 보면 3월까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매물 출회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난다. 한강벨트 7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성동·마포·광진구)는 시장에 새로 나온 매물 가운데 실제 거래된 비율인 매물 흡수율이 36.9%였다.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핵심 지역(16.6%)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 단지. /성채리 인턴기자

됐다”고 말했다. 그는 “60억5000만원에 거래되던 물건이 56억7500만원에, 51억5000만원이던 물건이 49억원 수준에서 거래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막판에 내놓는 매도인들은 ‘팔리면 좋고 아니면 세금 내고 보유하겠다’는 분위기다. 늦게 매물을 내놓으면서도 가격을 크게 낮추지 않는 것은 결국 보유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급매 소화, 정상가격 매물만 남아 막판 내놓는 매도인 ‘팔리면 좋고, 아니면 세금 내고 보유’ 분위기 매도-매수자 간 눈높이 차이 커 내달 초 연휴 이후 급매 가능성도

현장에선 거래 실종의 핵심 원인으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높이를 꼽는다. 용산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2억~3억원 낮춘 매물이 나오는데, 매도자는 충분히 낮췄다고 보지만 매수자는 더 떨어지길 원한다”고 했다.
 1주택자의 움직임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용산·성동·강남 일대 중개업소들은 “보유세 때문에 팔아야겠다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여기를 살 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 “보유세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나오지 않아 지켜보는 분위기다”라고 입을 모았다.
 결국 시장은 ‘가격 줄다리기’ 국면이다. 매수자는 대출 규제 등으로 자금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추가 하락을 기대하며 관망하고, 매도자는 호기를 크게 낮추지 않은 채 상황을 지켜보는 흐름이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증가 유예 조건이 계약이 아닌 토지거래허가 신청 기준(매도 가능 기간 약 2~3주 연장 효과)으로 완화된 만큼 5월 초 연휴 이후 급매가 나올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용산 인근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 5월 초에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4월 말에서 5월 초가 되면 매수자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李, “교권-학생인권 제로섬 아냐...교권 보호 강화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추경호, 선거캠프 명예선대위원장에 김문수 위촉 /사진 뉴시스

삼성 구독형 콘텐츠 vs 모델사양 조정 애플

‘원가부담’ 스마트폰 대응 전략 삼성전자, 남미 음원 플랫폼 제휴 ‘뉴 갤럭시 AI 구독클럽’ 전면개편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의 원가 상승과 수요 둔화란 이중 압박 속에서 각기 다른 생존 전략을 꺼내 들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독형 콘텐츠 결합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애플은 일반 모델 사양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원가 부담 전략을 다변화하는 모습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구독형 콘텐츠 혜택을 접목해 스마트폰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남미에서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와 제휴를 맺고 갤럭시 A57·A37·A17·A07 구매자에게 최대 3개월간 스포티파이 프리미엄 혜택을 제공한다.
 이 같은 제휴는 메모리 등 부품 가격 상승으로 스마트폰 제조원가 부담이 커진 가운데 시장에서 수익성 방어를 꾀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현지 주력 제품군인 A시리즈를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과 서비스 경험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에 갤럭시 스마트폰 고객을 위해 편의성과 혜택을 강화한 ‘뉴 갤럭시 AI 구독클럽’을 전면 개편하기도 했다. 자급제 플래그십 모델 구매 고객 5명 중 1명이 가입할 정도

로 시장 호응을 확인한 가운데 3년형 상품을 추가하고 보장 범위도 확대했다. 단순 판매를 넘어 관리와 구독 영역으로 스마트폰 경험을 확장하려는 전략이다.
 아울러 원가 부담 대응과 상품성 강화를 위한 제품 전략 조정에도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출시한 보급형 갤럭시A57에 플렉시블 OLED를 적용했다. 전작인 A56에는 리지드 OLED를 사용했으나 제조원가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삼성디스플레이와 CSOT 두 곳에서 A57용 플렉시블 OLED를 공급받고 있는 것이다. <2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metro



채용공고 살펴보는 구직자들 2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

통신3사, AI 들고 동남아 시장 ‘재도전’

SKT, 베트남 현지서 AIDC 구축
 KT, 대만·베트남 AX 사업 확장
 LGU+, 말레이 기업 협력할 듯
 과거 동남아 시장에서 이동통신망 사업으로 한계를 겪었던 통신3사가 이번엔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현지 시장에 재도전한다.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 인공지능 전환(AX), AI 고객지원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사업을 무기로 사업 실행 단계에 들어선 모습이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올해 베트남에서 현지 에너지 자원과 연계한 AIDC 구축한다. SK이노베이션이 추진 중인 권람 LNG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1500MW급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등을 조성하고 이를 데이터센터 가동

전력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전력과 데이터센터를 결합한 에너지 연계형 AI 인프라 모델인 셈이다.
 KT는 동남아에서 국가 단위 AX 사업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부터 베트남 국영기업 비엠텔 그룹과 국가 범용 AI 언어모델을 공동 개발 중이다. 의료·국방·미디어 분야 맞춤형 AI 솔루션 확산도 추진한다. 대만에서는 최대 케이블 방송 사업자 KBRO와 AI 스마트홈·미디어 서비스를 패키지로 수출하며 플랫폼 사업을 확대한다.
 LG 유플러스는 올해부터 AI 콜 에이전트 ‘익시오’를 앞세워 동남아 시장에 진출한다. 이 회사는 최근 MWC2026에서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도이치텔레콤과 함께 AI 기반 고객지원 서비스 기

술을 선보인 바 있다. 말레이시아 디지털 콤과 협력 가능성이 거론됐고, 인도네시아와 중동 시장 진출도 검토 중이다.
 과거 동남아 시장은 현지 통신망 구축과 사업권 확보 부담에 부딪히며 한계를 드러냈다. 반면 AI 사업 구조는 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파수나 가입자 기반 없이도 전력·부지·운영 역량이 핵심 요소여서다. 수익 모델 역시 요금제가 아닌 데이터센터 임대, GPU 서비스, 클라우드, AI 솔루션 공급 등 B2B 계약 중심이다. 특히 베트남 정부에서 AI 인프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정책 지원이 맞물린 시장으로 평가된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

메트로 한줄뉴스

▲김용 “공관위 결정 받아들일 것...현실 정치인으로 계속 정치하겠다”
 ▲이진숙 “민주당 확장 막아야...당이 원하면 어 디로든 가겠다”

▲‘친한’ 박정하 “국민의 분노 대상은 장동혁...지선서 응징 받을까 걱정돼”
 ▲장예찬 “한동훈은 지지율 빠질 일만...내가 무 소속해봐 안다”

李 “자주국방 전술·전략 준비… 고유가 지원금 신속 집행”

李 대통령, 자주국방 실현 강조
글로벌 사우스 외교 지평 확장
국토부·재경부, 부동산 정책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자주 국방을 강조하며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어가 어려운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일부 세력이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국민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지금 이런 객관적인 상황들을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달라”며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외부에) 의존을 하나. 당연히,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일각에서라도 그런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가지지 않게 해야 된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자체적인 군사작전 역량은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짜고 할 준비를 해놔야 한다. 전술·전략도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그런 차원에서 전작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 체계도 다 갖추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세계 경제와 안보의 구조적인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안정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의 선택지를 꾸준히 늘려가는 전략적이고 유연한 국외 실용외교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주 인도·베트남 국민 방문에 대해 “이들 국가와 다방면에 걸친 협력 관계를 공고화한 것은 장기적인 국외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전략적인 국외 외교라는 관점에서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에 주로 분포한 개도국)와의 외교 지평을 넓혀가야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도록 하겠다”면서 “전통적인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전날(27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대해 “지난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도 유사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 과정을 세밀하게 살피고, 관련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보고가 있었다. 또 비거주 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KB금융그룹 |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일상이 잠시 멈춰도 KB손해보험과 다시 출발

속상한 일이 생겨도 이상한 일이 생겨도
일상은, 멈춰선 안되죠

당신에게 그 어떤 일이 생겨도
일상의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KB손해보험이 곁에서 힘이 되겠습니다

[일상을 지키는 힘 |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정부, 핵심사업 소재 수급 점검 석화 가동률 상향 등 총력 대응

중동긴장 고조… 국제유가 상승세
“주요 소재 유통단계부터 면밀히 관리”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와 가스 가격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 현장의 필수 물품과 반도체·자동차 등 국가 핵심 산업 소재의 수급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국내 공급망 안정을 위해 비축유 스왑 및 석유화학 가동률 상향 등 총력 대응 중이다.

산업통상부가 28일 발표한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전날(27일) 기준 국제 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교착 상태가 지속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7시 기준 브렌트(Brent)유는 전일 대비 0.1% 상승한 배럴당 108.30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쟁 이전인 지난 2월 27일 대비 49.4% 오른 수준이다.

정부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 분야 물품을 최우선 공급 품목으로 지정했다. 수확제 포장재는 6월 말까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동시에 대체 공급 방안을 테스트 중이다. 특히 주사

기류의 경우 지난 14일 시행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에 따라 27일부터 2차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핵심 산업 소재는 아직까지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헬륨과 알루미늄은 미국과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해 대응 중이며, 조선업에 필수적인 에틸렌 가스는 석유화학사와의 협의를 통해 5월에도 정상 공급하기로 했다. 반도체용 브롬화수소 역시 일본(46%)과 미국(25%)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수입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6744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 나프타와 기초유분 등 핵심 원료의 수입단가 차액 50%를 지원한다. 이에 응해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도 가동률을 높이며 국내 공급 물량 확보에 동참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유통 단계에서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사양 차등화 등 원가부담 흡수 움직임도”

>> 1면 ‘구독형 콘텐츠…’서 계속

애플도 원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 전략 조정 가능성을 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맥루머스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내년 초 출시 예정인 아이폰18 일반 모델의 디스플레이와 칩 사양을 일부 조정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아이폰18 일반 모델의 디스플레이 사양이 전작인 아이폰17보다 낮아지고 아이폰18e와 유사

한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는 애플이 비용 절감을 위해 일부 사양을 낮추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은 가격 민감도가 높아 판매가를 올리기 쉽지 않은 만큼 최근에는 구독형 혜택이나 서비스 결합으로 체감 가치를 높이는 전략이 부각되고 있다”며 “일부 제조사에서는 제품 사양 차등화 등으로 원가 부담을 흡수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비싸서 못 산다”는 개미들… ETF로 주도주 쪼개 담는다

반도체·전력기기 ETF로 자금 유입 주도주 급등에 직접투자 부담 TIGER 반도체TOP10 순매수 1.8조 단일종목 ETF 출시엔 투자행렬 가속

직장인 윤모(42)씨는 이달 초 처음으로 상장지수펀드(ETF·Exchange Traded Fund)에 1700만원을 투자했다. 효성중공업 등 전력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와 코스피 200지수를 추종하는 상품 두 가지다. 윤씨는 “요즘 핫하다는 주식은 가격이 너무 올라 ETF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성장성 높은 기업들에 ‘ 묶음’으로 투자할 수 있어 한 두 종목에 묻어두는 것보다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 치우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등 증시를 이끌던 ‘알주식’에 대한 매도세가 커지는 동시에, 이들 종목을 추종하는 ETF로 개인 자금이 대거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ChatGPT로 생성한 전력기기 투자를 고민하는 투자자 이미지

◆증시자금 블랙홀 ETF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TIGER 반도체TOP10 ETF’는 이날 기준 연초 이후 개인 순매수 1조7666억원을 기록했다. 순자산은 10조4126억원으로, 국내 상장 주식형 테마 ETF 가운데 최대 수준이다. 연초 2조8000억원 수준이던 순자산이 세 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AI 에이전트 서비스 확산으로 메모리는 이제 AI 산업의 경제성을 결정짓는 핵심 자원이 됐다”며 “해당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 투자를 통해 반도체 업황 회복 국면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신한자산운용의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반도체 투자 수요를 빨아들인다. 이 상품은 지난 3월 17일 110억원 규모로 상장한 이후 이틀 만에 순자산 1000억원, 일주일 만에 2000억원을 돌파했다. 이어 상장 한 달 만에 5000억원을 넘어섰고 현재 8871억원으로 불어났다. 해당 ETF의 연초 이후 개인 투자자 누적 순매수 금액은 4259억원에 달한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올해 들어 ‘ACE AI반도체TOP3+’ ETF로 유입된 개인 투자자 순매수액이 1053억원을 넘었다. 전력기기 기업을 담은 TIGER 코리아AI전력기기TOP3플러스ETF(연초 이후 2017억

원), KODEX AI전력핵심섀비(4170억원) 등에도 개인 자금이 빠르게 유입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지수를 이끄는 대형주들의 주가가 급등하며 변동성이 커졌다고 판단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개별 종목에서 ETF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효성중공업 등 시기종액 상위 종목들이 단기간 급등하면서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 주요 종목들의 주가 상승 속도는 개인 투자자들이 부담을 느낄 만큼 가파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YTD)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률은 72.76%, SK하이닉스는 92.02%에 달한다. 효성중공업(115.50%)과 LS일렉트릭(165.48%)의 상승률은 더 가파르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개별 종목 주가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ETF로 자금이 몰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직장인 이모(30)씨는 “그동안 경험했던 코스닥은 실적보다는 운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다”며 “정부가 코스닥 3000시대를 목표로 제시한 만큼 지수 자체의 상승 여력은 있는 것 같은데, 개별 기업의 실적을 보고 투자하기는 어려워서 ETF

를 선택했다”고 했다.

◆ETF 개미, 다시 반도체로… 선순환 장세 업계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개별주식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ETF로 투자처를 다양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진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본부장은 “최근 반도체주의 변동성이 커지긴 했지만, 펀더멘탈 측면에서 보면 AI 수요 증가와 AI 설비투자 지속 추세는 변하지 않았다”며 “AI 인프라의 핵심이 되는 HBM 3대장에 집중 투자하는 ACE AI반도체TOP3+ETF 투자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인버스 ETF가 다음 달 출시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ETF 투자 행렬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의 주도주에 레버리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어서 국내외 투자자의 관심이 상당히 높다”며 “단일 종목 ETF가 도입되면 해외 투자 수요 일부가 국내 시장으로 흡수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하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metro

중동 사태에 건설자재 수급 ‘경고등’… 분양가 상승 불가피

건설공사비지수 133.69 역대 최고 자재수급지수 첫 70선대로 급락 유가·물류비 상승에 원가 부담 확대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건설 자재 수급 불균형과 이에 따른 공사비 상승이 현실화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중동발 약재가 이어지면서 건설자재수급지수는

최저치를 기록했다.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한 만큼 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은 물론 수분양자의 자금 조달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28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건설공사비지수 133.69다.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에서

2023년 1년 127.10으로 3년간 30% 가까이 뛰었다. 2024년 1월 129.77, 2025년 1월 131.03 등으로 다소 안정되던 것이 올해 들어 상승폭이 확대됐다.

주거용 건물의 건설공사비지수 역시 지난 2월 131.50으로 관련 자료 공표를 시작한 2000년 1월 이래 역대 최고치다.

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공사비지수는 최근 최고치 기록을 지속 경신하고 있

으며,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안정한 대외 경제 상황으로 상승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에너지와 물류비의 급격한 상승은 국내 건설업계에는 직격탄이다. 중동 사태 이후 국제유가는 급등했으며,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자재 수급 우려는 현실이 됐다.

올해 3월 건설경기실사지수(CBSI)는 67.8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인트(p) 더 하락하면서 기준치인 100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다. 특히 CBSI 세부실적지수 가운데 자재수급지수는 74.3으로 전월 대비 16.7p 하락했다. 지난 2024년 5월 자재수급지수를 신규 도입 이후 70선을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연구원은 “자재수급지수가 전월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며 이례적으로 70선대로 진입했다”며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원자재 시장 불안 등 공급 여건 악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metro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언제나 든든하게~

노란우산이 함께해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복리 이자 목돈 마련

신속한 비대면 대출

공제금 압류 금지

홍보대사 소유미

KBIZ 중소기업중앙회

가입문의 **1666-9988**

*취급은행 :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AI 시대 지정학적 한계 넘어야... 韓·日 경제통합으로 돌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美-中 AI 패권 경쟁 격화 상황에서 韓 독자적 영향력 확보 어려워

日과 통합 시 6조 달러 규모 확보 동남아 편입으로 시장확대 가능성 데이터센터 최소 30GW 규모 필요 병목 요인, 자금·전력·GPU·메모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인공지능(AI) 강국 도약을 위한 해법으로 한일 경제통합과 대규모 인프라 확충을 제시했다. 미중 AI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단독으로는 규모와 협상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일본과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해 영향력을 키우고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AI 시장을 빠르게 키워야 한다는 판단이다.

최 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중 의원연맹 주최로 열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미·중 AI 기술 패권 경쟁 속 대한민국 성장전략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미중 AI 기술패권 경쟁 속 대한민국 성장전략’ 정책 세미나에서 “AI 시대에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한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미중 패권 경쟁에서 버티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현재 한국의 경제 규모만으로는 미중 경쟁 구도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 GDP는 약 1조8000억 달러로 중국의 10분의 1, 미국과는 15~20배 차이가

난다”며 “상대편이 우리를 그렇게까지의 식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일본과의 경제통합을 제안했다. 단순한 협력 수준을 넘어 외부에서 하나의 경제권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그냥 협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남이 우리를 쳐다봤을 때 합쳐진 경제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들어가야 힘이 생긴다”며 “한·일이 통합하면 6조 달러 규모로 중국의 3분의 1 수준이 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을 사례로 들며 경제권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EU를 만들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미국이나 중국에 대등한 형태로 협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며 “우리는 아직 그 정도 규모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경제통합은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단계적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일 경제통합이 이뤄질 경우 아시아 지역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6조 달러의 힘을 갖게 되면 동남아 국가들도 우리 쪽으로 편입되기를 바랄 것”이라며 “중국과 맞먹는 시장 규모를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국에는 AI 공장이 없다”며 데이터센터 구축

규모를 최소 10~30기가와트(GW)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SK가 아마존웹서비스와 100메가와트(MW) 규모 데이터센터를 울산에 구축하기로 했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1GW 수준을 넘어 최소 20~30GW 규모의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I 확산 과정에서의 병목 요인으로는 자금과 전력, 그래픽처리장치(GPU), 메모리 등을 지목했다. 특히 메모리 수급과 관련해 “지금은 메모리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생산량이 제한돼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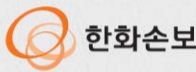
국내 AI 활용 전략으로는 공공 수요를 기반으로 한 초기 시장 조성을 제시했다. 정부와 공공 영역에서 수요를 먼저 형성해 AI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민간 투자와 기업 내부 AI 전환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방향이다.

최 회장은 “인프라를 만들고 수요를 모아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AI이니셔티브를 확보하고 먼저 만든 서비스와 모델을 해외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에는 상품이 아니라 기능을 만들어 수출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며 “AI 전략에서는 속도와 규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0(무)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1.0(무)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4.0(무)

여성의 인생은 한 챕터로 끝나지 않으니까

몸이 아플 때만 필요하던 보험에서 마음까지 챙겨주는 보험으로

현실과 멀었던 케어에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함께하는 케어로(특약)

그렇게 여성의 현실을 깊이 살피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험이 되었습니다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4.0(무)

지난해 12대 신산업 분야 벤처투자액 5.2조대 유지

중기부 ‘신산업 분야 벤처투자 동향’ 전체 벤처투자 76%... 전년비 1.2% ↓ 차세대 유니콘·지역성장펀드 지원

지난해 12대 신산업 분야 벤처투자액이 5조2000억원대를 유지했다. 분야별로는 AI 모델 및 인프라(인공지능)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5년 12대 신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동향’에 따르면 총 투자액은 5조2000억원으로 전체 벤처투자(6조8000억원)의 약 76%를 차지했다.

12대 신산업 분야 총투자액은 전년도의 5조2657억원에서 1.2% 줄었다. 기업당 평균 투자액은 33억9000만원으로, 신산업 이외 분야(19억1000만원) 대비 1.7배 가량 높았다.

분야별로는 인공지능이 전체 투자의 19.6%인 1조3000억원을 유치하며 12대 신산업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콘텐츠(1조1800억원), 헬스케어(1조1300억원), 첨단제조(9700억원)에도 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가 이뤄졌다.

생명신약(+35.4%), 방산·우주항공·해양(+19.2%), 모빌리티(+16.5%)는 전년 대비 투자가 크게 증가했지만 에너지·원자력·핵융합(-55.2%), 첨단제조(-22.0%), 반도체(-20.8%)는 주춤했다.

벤처투자액 중 후속투자는 87.7%인 4조5624억원으로, 기존 포트폴리오 기

업에 투자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업력별로는 7년 이후 기업에 50% 이상 투자가 이뤄졌고, 업력이 길수록 평균 투자액도 커졌다.

100억원 이상 대형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158개사로, 신산업 분야 기업이 131개사(83%)에 달했다. 500억원 이상 투자 받은 6개사는 모두 신산업 분야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4조1000억원(79.1%), 비수도권 1조1000억원(20.9%)이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2조6000억원)이, 비수도권 중에서는 대전(3913억원)과 경남(1071억원)이 선전했다.

대전은 차세대 항체·약물 접합체(ADC) 플랫폼 관련 기술력을 갖춘 트리오어 등 생명신약 분야 투자가 활발했다. 경남은 선박용 기자재 제조업체인 엠엔에스아이 등 방산·우주항공·해양 분야 투자 비율이 높았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 시장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창업·벤처기업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인공지능·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을 성장단계별로 지원하는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조성하는 지역성장펀드 등으로 신산업 기업에 안정적인 성장 재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metro

보험계약자는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 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한화손보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 1년입니다. http://www.hwgeneralins.com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69203호(2026.01.23~2027.01.22)

세상이 바뀌어도 지켜야 할 건 변하지 않습니다

미래 모빌리티의 일부이자 전부



홀로그래픽 윈드실드 디스플레이

차량 전면 유리를 투명 디스플레이로 활용해 주행 정보 표시 및 이미지·동영상 등을 구현

평택을 5자·부산 북갑 3파전… 재보선 최대 변수는 ‘단일화’

평택을, 보수 야권 2명·범여권 3명
표 분산시 30% 이하도 당선 가능
부산 북갑, 보수 진영 단일화 압박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 가운데 ‘단일화’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지역은 부산 북갑과 경기 평택을이다. 부산 북갑은 국민의힘과 무소속으로 나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단일화 여부가 관심사고, 경기 평택을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의 단일화 상황이 주목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27일)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김용남 전 의원을 전략 공천했다. 해당 지역은 이병진 민주당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재선거가 열린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개혁신당에서 활동하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에 영입된 김 전 의원의 평택을 전략공천에 대해 “보수 확장성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로 봤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이 수도권에선 민주당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을 고려했다는 의미다.

이에 경기 평택을 재선거는 5자 구도



하정우(왼쪽) 시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데미스 하서비스 구글 담당 CEO 접견 일정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로 치러진다. 일단 민주당에선 김용남 전 의원, 국민의힘에선 유의동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 여기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도 나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해당 지역을 출마지로 정했고,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지난 2월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일찌감치 활동하고 있었다. 보수 야권에선 후보가 2명, 범여권에선 후보가 3명인 셈이다. 이에 일각에선 30% 이하를 받아도 당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에선 범여권 단일화 논의의 과정

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수 정당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던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했다는 것 자체가 조국 대표를 위한 ‘양보’는 없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거기가 진보당의 경우 울산시장 단일화 문제도 얽혀 있어 이 문제를 풀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이 많다.

단 김 전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단일화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제1야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보이면 그때 가서 단일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

했다.

또 주목을 받는 곳은 부산 북갑이다. 이곳은 국민의힘에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출마를 위해 활동을 하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민주당은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지역구였던 이곳에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영입해 공천할 방침이다. 하 수석은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이에 하 수석이 출마하게 되면 북갑 보궐선거는 3파전이 될 전망이다.

부산 북갑은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20년간 뒹아온 지역구다. 이때 문인진 2024년 총선 당시 부산의 18개 지역구 중 유일하게 전재수 후보만 민주당 소속으로 생활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전 후보의 ‘개인기’로 당선된 것이니만큼, 하 수석이 나선다 해도 쉬운 선거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이런 가운데 박민식 전 장관은 한동훈 전 대표를 ‘정기 기생’, ‘침입자’라는 거친 표현을 쓰며 “당 지도부에서(후보) 단일화하라고 하더라도 저는 노(N)입니다”라며 단일화에 강한 거부 의지를 드러냈다. 한 전 대표 역시 완주의

지가 강하다.

하지만 보수 진영 단일화 압박은 거세 질 전망이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북갑 거주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상 3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에서 하 수석(민주당 소속)이 35.5%, 한 전 대표(무소속)는 28.5%, 박 전 장관(국민의힘)은 26.0%를 기록했다.

하 수석은 아직 출마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 출마 이후 여론조사를 지켜봐야 하지만, 해당 여론조사에서 한 전 대표와 박 전 장관이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라는 게 관건이다. ‘대선주자급’으로 평가받던 한 전 대표가 박 전 장관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면, 단일화 압박은 무소속인 한 전 대표에게 쏠릴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p), 응답률은 9.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쌍방을 대북송금 놓고 與 “조작기소” vs 野 “이재명 관여” 민주당 김용 컷오프 “선거 고려한 결단”

국조특위, 김성태 출석 청문회 격돌
내일 회의서 국조 결과보고서 채택

여야가 28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종합청문회에서 쌍방을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 여부 등을 놓고 격돌했다.

이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남쪽 변호사 주리를 틀어 허위 진술을 받고, 김성태 증인도 마찬가지로 압박 수사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압박 조작 수사의 일종의 숙주가 된 희생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성태 증인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김 전 회장이 수원지검 검사실을 지칭하며) ‘더 이상은 저것들하고 이야기할 게 없어. 저것들은 악마보다 못한 놈들이야’ 등을 면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 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태 쌍방을 전 회장을 뒤로 하고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자에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나이 어린 검사들이 압박한다고 해서 제가 위축될 사람은 아니다”라며 “제가 족들, 동료들 17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구속됐다. 검찰이 어느 대기업을 수사하면서도 회사 내부자 열 몇 명을 구속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쌍방을 대북송금 사건의 본질은 경기도가 하는 스마트폰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경기도 이재명 지사 300만 달러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뽕 먹고 알 먹고’, 즉 후원자로 하겠다는 목적 때문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와 통화했는지 묻는 질문을 이어가자 김 전 회장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김 전 회장에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 측 설득, 회유가 있었다. 누가 설득하고 회유했나”라고 거듭 물었다. 김 전 회장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의원인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김 전 회장이) 검찰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았을 텐데 의원까지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제재에 나섰다.

이날 청문회를 마친 특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위증 및 불출석 증인 고발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보민 인턴기자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당내 계파 갈등까지 치달았던 김용 전 민주당연구원 부원장 공천 문제가 ‘컷오프(공천 배제)’로 마무리된 가운데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28일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선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희들이 막판까지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고 당의 전략 단위라든지 또 현재 광역단체장이라든지 일선에 뛰고 있는 후보자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당이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의견을 좀 들었다”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는 의견들이 강했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 공천이 가장 하지 말아야 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일선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이 제게 의견을 보내왔다”며 “특히 수도권, 영남권 이런 쪽에서는 당에서 결단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배려, 정치적 지지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런 행위들과 당이 공천하는 공적인 행동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라며 “이렇게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의 조국혁신당과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선 “지금 단일화와 관련된 얘기는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野 “정부, 세금정책으로 국민 상대 실험”

금융·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 촉구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금융 및 부동산 정책의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정부가 민감한 세금정책을 두고 국민과 시장을 상대로 불안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며 “특히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 투하될 세금폭탄의 일환으로,

이 대통령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를 전격 부활시킬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대선 공약을 내세웠지만 정반대로 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까지 내놓으며 시장은 증여 확대와 매물 잠김으로 반응했고 결국 가격 상승 압력만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임대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췄고 월세 부담은 급증하며 서민들의 주거 기반마저 무너지고 있다”며 “부동산 보유세 역시 임차인에 그대로 전가될 것이 뻔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 국민들이 마주할 현실은 다름 아닌 세금 폭탄인 것”이라며 “정부가 예고한 7월 세계개편안은 사실상 세금폭탄 공습경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전세가 없어 월세로 밀려나고 그 월세마저 폭등하며 중산층과 서민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원인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권이 공급을 외면한 채 세금과 대출

규제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 대통령께 촉구한다. 지금은 일반적인 세금 인상과 규제에 의존한 접근이 아니라 지역맞춤형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겉으로는 반도체 호황과 증시 상황으로 활기가 띄는 듯 보이지만 골목상권과 서민주거시장 경제는 차가운 게 현실”이라며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전세 주거안정 대책, 지역상권 회복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모두를 위한 금융, 함께 가는 성장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모두의 희망이 하나로 모여 따뜻한 내일로 나아갑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진심이 담긴 포용 금융으로 손님의 성장을 이어갑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증부대출

금융취약계층
자립 지원

지역
골목상권 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여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금융이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포용 금융 지원 •서민·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 금융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증시 활황’ 특수… 캐피탈사, 비이자수익 중심 실적 반등

신한 1분기 순이익 618억
전분기비 280%, 전년비 97% ↑
하나 순이익 645억 늘어 적자 탈출
JB우리 유가증권 이익 396% ↑
여신·연체율 등 리스크 ‘주의보’



Chat GPT가 생성한 증시 활황과 캐피탈사 순이익 증가 관련 이미지

주요 금융지주 계열사인 캐피탈사가 증시 활황 특수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에 비이자수익을 중심으로 순이익이 증가했다. 다만, 부실 자산 확대에 따른 리스크는 여전한 모습이다.

28일 각 금융지주 경영 공시에 따르면 신한캐피탈의 1분기 순이익은 6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3% 증가했고, 하나캐피탈은 535억원으로 70.2% 늘었다. JB우리캐피탈은 727억원으로 24.3% 증가했다.

신한캐피탈의 전 분기 대비 순이익 성장률은 279.1%다. 1분기 만에 순이익이 163억원에서 618억원으로 약 3.8배 늘었다. 하나캐피탈도 같은 기간 순이익 규모

가 645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하나캐피탈은 11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캐피탈사들이 투자 이익을 본 덕분이다.

신한캐피탈의 비이자수익은 전년 동기(1655억원) 대비 84.4% 증가한 3052

억원을 기록했다. 그중에서 유가증권 부문 수익이 2188억원으로 같은 기간 44.2% 증가해 전체 비이자수익의 성장을 주도했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신한캐피탈의 경우 증시 호황으로 배당금 등 유가

증권 관련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JB우리캐피탈도 큰 폭의 유가증권 이익을 봤다. 지난해 1분기 72억원에 불과했던 유가증권 이익이 올해 1분기 357억원으로 396%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하나캐피탈의 매매 평가액은 마이너스(-)5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155억원) 대비 손실 폭을 102억원 가량 줄이며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매매 평가액은 주식·채권 등 보유 금융자산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세가 상승해 장부상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통상 증시가 호황일수록 매매평가이익 규모도 확대된다. 유가증권 투자 이익은 매매 평가액과 실제로 주식을 팔아서 남긴 처분이익 등을 모두 합친 이익을 뜻한다.

비이자수익의 확대 등 실적 호조세가 이어지며 신용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최근 키움캐피탈의 수익 창출력과 재무

안정성을 높게 평가하며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한국신용평가 관계자는 “이자마진 회복과 투자금융 이익 증가를 기반으로 (키움캐피탈의) 수익성이 개선됐다”며 “주식시장 호조 등에 따라 투자금융 이익 증가가 더해지면서 총자산이익률(ROA)이 전년 대비 개선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업계의 건전성 리스크는 여전한 모습이다. 신한캐피탈 1분기 고정이자여신(NPL) 비율은 3.31%로 전 분기 대비 1.01%포인트(p) 상승했다. JB우리캐피탈은 같은 기간 NPL 비율이 2.60%로 전 분기 대비로는 0.52%p, 전년 동기 대비로는 0.19%p 상승했다.

하나캐피탈의 경우 NPL 비율이 지난해 1.62%에서 1.56%로 떨어졌으나 같은 기간 연체율이 1.62%에서 2.37%로 0.75%p 상승했다.

/안재선 기자

wotjis4187@metroseoul.co.kr



metro

기업심리 소폭 올랐지만 경제심리 ‘싸늘’

한은, 4월 기업심리지수 0.8p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비용부담 커져

중동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4월 기업심리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개선됐다. 하지만 가계의 수입·소비 전망과 제조업 자금사정 전망이 악화되면서 경제 전반의 심리는 오히려 꺾였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4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에 따르면 4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4.9로 전월보다 0.8포인트(p) 상승했다. 다음 달 전망 CBSI도 93.9로 전월 대비 0.8p 올랐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를 활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인 100을 기준으로 100을 웃돌면 기업 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낙관적이고,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4월 지수는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선인 100에는 미치지 못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개선세가 두드러졌다. 제조업 CBSI는 99.1로 전월보다

2.0p 상승했다. 제품재고와 업황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제품재고는 경기 판단과 반대로 움직이는 역계열 지표로, 재고 부담이 줄어든 점이 제조업 체감경기 개선에 기여했다.

비제조업 CBSI는 92.1로 전월보다 0.1p 오르는 데 그쳤다. 매출은 개선됐지만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상승폭이 제한됐다. 다음 달 전망도 제조업은 98.0으로 2.1p 상승한 반면 비제조업은 91.2로 전월과 같았다.

세부 BSI를 보면 제조업 업황 BSI는 74로 전월보다 3p 상승했다. 매출 BSI는 87로 4p 올랐고 신규수주 BSI도 85로 1p 상승했다. 제품재고수준 BSI는 97로 4p 하락해 재고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용 부담은 커졌다. 제조업 채산성 BSI는 68로 전월보다 5p 하락했고, 자금사정 BSI도 76으로 3p 낮아졌다. 원자재 구입가격 BSI는 149로 전월보다 12p 뛰었다. 제품판매가격 BSI도 110으로 7p 상승했지만 원가 상승 폭이

더 컸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경영여도 원자재 가격 상승이었다. 제조업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꼽은 비중이 34.2%로 전월보다 13.2%p 뛰었다. 이어 불확실한 경제상황 19.3%, 내수부진 13.8% 순이었다.

비제조업도 원자재 가격 상승 비중이 19.4%로 가장 높았다. 전월보다 5.8%p 높아졌다. 불확실한 경제상황은 18.7%, 내수부진은 16.7%로 뒤를 이었다.

기업심리는 반등했지만 경제심리는 하락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와 소비자동향지수를 합성한 4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1.7로 전월보다 2.3p 떨어졌다. 순환변동치도 94.4로 전월 대비 0.3p 하락했다.

ESI 하락에는 제조업 자금사정 전망 악화와 가계 심리 둔화가 영향을 미쳤다. 제조업 자금사정 전망 기여도는 마이너스(-) 0.6p였다. 가계수입전망과 소비지출전망도 각각 -1.0p, -0.8p로 나타났다.

/김주형 기자 gh471@

주담대 금리 8%대… 인뱅, 경쟁력 ‘흔들’

당국, 부채 관리에 인하여력 축소

시중은행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 대출 총량을 엄격히 제한하자, 주담대 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의 금리 인하 여력이 축소된 영향이다. 이에 따라 낮은 금리를 앞세운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아파트 담보대출은 연 3.72~8.50%로 집계됐다. 같은날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연 3.61~6.01%인 것과 비교하면 하단은 0.11%포인트(p), 상단은 2.49%p 높은 수준이다.

케이뱅크, 연 3.72~8.50% 집계 시중은행 보다 상단 2.49%p 높아 카카오펙, 연 4.29~6.92% 수준 일주일 새 금리상단 0.59%p 상승 인니·태국·몽골 등 해외진출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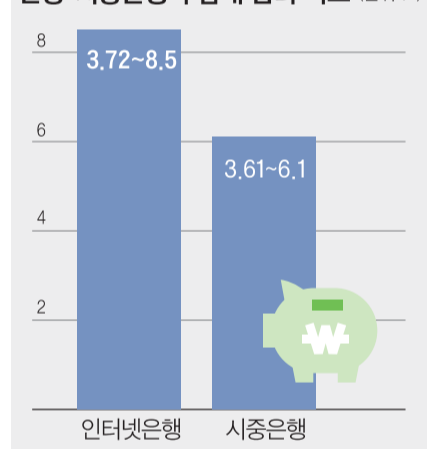
카카오펙 주담대 금리는 같은 기준 연 4.29~6.92%로 나타났다. 불과 일주일 전과 비교해 하단은 0.1%p 상단은 0.59%p 올랐다.

이처럼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높아진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주담대 비중이 대부분인 인터넷은행의 운용 부담이 커진 영향이 크다.

기업대출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할 수 있는 시중은행과 달리, 여신 구조가 가계에 집중된 인터넷은행은 규제 변화에 더 크게 영향을 받으며 금리 산정에도 제약이 따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까지 안고 있어 리스크 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인뱅·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비교 (단위:%)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은 여신 구조상 가계대출 비중이 높아 총량 규제가 강화될수록 금리 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주담대 확대 여지가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낮추기보다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는 대출심사모형(CSS)을 한층 정교화하고, 향후 중소기업(SME)전용 상품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 최초로 선보인 비대면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을 활용해 건전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카카오펙은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카카오펙은 인도네시아, 태국에 이어 몽골 진출을 확정된 상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슈퍼뱅크에 자본을 투자해 현지 디지털 은행 서비스를 운영한다. 태국은 SCBX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상은행을 운영한다. 몽골은 MC S그룹과 협력해 CSS기술 카카오펙 스코어를 수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은행들이 기업 금융이나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이런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수익원과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115@

DL이앤씨, 목동6단지 재건축 도전장

단지명 ‘아크로 목동 리젠시’ 제안

DL이앤씨는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6단지 재건축 사업’의 수의계약을 위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DL이앤씨는 앞서 목동6단지 조합이 진행한 시공사 선정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획득했다. 조합은 DL이앤씨 제안을 검토한 후 오는 6월 27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목동6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 14개 동, 2173가구 규모(조합 원안설계 기준)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1조2129억원에 달한다.

DL이앤씨가 목동6단지에 제안한 단지명은 ‘아크로 목동 리젠시(ACROM OKDONG REGENCY)’다. 오랜 시간 대한민국을 대표해 온 교육특구이자 명문 주거지라는 가치를 강조하고 목동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징이자 기준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DL이앤씨는 글로벌 건축사와 하이엔드 조경 설계그룹 및 초고층 건축구조 설계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 특화 설계를 목동6단지에 제안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목동6단지는



아크로 목동 리젠시 투시도. /DL이앤씨

목동에서 유일하게 한강과 안양천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목동신시가지 내 최고의 입지로 대체 불가능한 상징성과 희소 가치를 갖고 있다”며 “DL이앤씨는 독보적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이번 제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LGD·이노텍, 순이익 8000억 격차 사업구조·재무체질 그대로 드러나

양사 1분기 매출 5.5조대 기록 LG이노텍, 반도체 기반 수익 증대 LGD, 외화부채 환산손실 확대

LGI노텍과 LG디스플레이(LGD)가 2026년 1분기에 나란히 5조5000억 원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당기순이익에서는 8000억원을 웃도는(8048억원) 격차가 벌어졌다. 매출은 같았지만 수익의 질은 크게 엇갈렸다. LG이노텍은 순이익 2291억원을 기록한 반면 LGD는 순손실 5757억원을 냈다. 양사의 매출 차이는 사실상 동물인 8억원에 불과했다. 같은 애플 공급망에 속했지만, 두 회사의 사업 구조와 재무 체질 차이가 이번 실적에서 그대로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LGD와 LG이노텍은 각각 지난 23일과 27일 공시를 통해 2026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LGD는 매출 5조5340억원, 영업이익 1467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38% 증가하며 2021년 이후 1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LG이노텍은 매출 5조5348억원, 영업이익 295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해 1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양사 모두 비수기에도 영업흑자를 유

지했지만, 당기순이익에서는 격차가 확대됐다.

이노텍 실적의 핵심은 카메라 모듈과 고사양 기관 등 고부가 부품의 동반 성장이다. 비수기에도 아이폰 고사양화에 따른 모바일 카메라 모듈 수요가 견조했고 FC-BGA·FC-CSP 등 반도체 기반 공급도 호조를 이어갔다.

특히 반도체 기반 사업은 카메라 모듈 대비 높은 수익성을 바탕으로 이익 기여도를 빠르게 높이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함께 반도체 기관 시장이 모바일 중심에서 AI·서버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 속에서 이노텍은 해당 수요를 흡수하며 수익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AI·고성능 컴퓨팅(HPC)용 FC-BGA 공급 확대와 함께 생산능력 확충을 추진 중이다.

반면 LGD는 영업흑자를 냈지만 순손실을 기록했다. OLED 매출 비중이 60%까지 확대되며 계절적 비수기에도 OLED 중심의 수익 구조 전환이 수차례 확인됐다.

시장조사업체 유비리서치는 글로벌 중대형 OLED 시장이 2026년 약 115억 달러에서 2030년 20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중대형 OLED 수요 기반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

여준다.

다만 순손실은 영업 외 요인에서 발생했다. 1분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환율 변동에 따라 수백억원 규모 손익 변동이 발생하는 구조여서 외화부채 환산손실이 확대됐다. 부채비율은 251% 수준으로 재무 건전성 개선이 과제로 남아 있다.

하반기를 앞두고 LGD에 유리한 외부 변수도 거론된다. 중국 BOE의 OLED 패널 수출 이슈가 이어지면서 일부 프리미엄 제품군에서 공급 공백이 발생했고, 이 영향으로 LGD의 공급 입지가 유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기술 격차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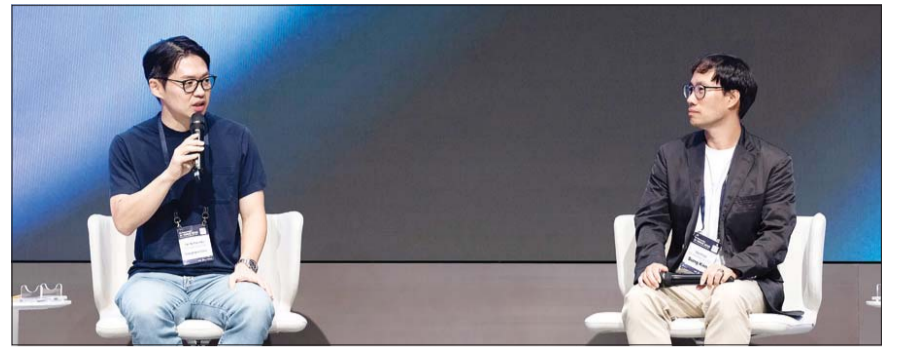
두 회사의 전략 방향도 같긴다. 이노텍은 애플 공급망을 기반으로 반도체 기관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수익성을 강화하고 있다. LGD는 애플 의존도를 관리하면서 IT·모니터·차량용 OLED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고 있다. 하반기 이노텍은 아이폰 신제품 사이클과 AI 기관 수요 향방이, LGD는 외화부채 관리와 OLED 전환 완성도가 향후 실적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SK네트웍스 AI WAVE 2025 행사장에서 최성한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사장과 업스테이지 김성훈 대표가 대담하는 모습. /SK네트웍스

SK네트웍스, 자회사 AI 혁신 가속화

최성한 사장 등 경영진 생태계 확장 행보

SK네트웍스가 각 자회사별로 AI를 실질적으로 사업에 적용해 웰니스, 호텔, 데이터,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SK인텔릭스는 AI 웰니스 로보틱스 브랜드 '나무엑스'를 통해 에어솔루션, 비접촉 바이탈 체크 등의 첨단 기능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팔로우미' 등 신기능을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추가해, 사용자를 인식해 따라다니는 등 실시간 인터랙션을 강화했다.

위커텔 호텔엔리조트는 국내 호텔업계 최초로 ChatGPT-4o 기반 AI 안내 서비스 '위커텔 AI 가이드'를 도입해 고객 맞춤형 안내와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I 가이드는 호텔 정보, 이벤트, 액티비티 추천, 레스토랑 예약 등 실시간 대화형 안내 기능을 갖췄으며 향후 객실 예약 정보 조회, 객실 내 AI 기반 예약 기능 등으로 서비스 고도화를 준비 중이다.

엔코어는 AI가 데이터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화·거버넌스·자동화 등 'AI Ready Data' 플랫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AI가 스스로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 맥락 지도, 자동화 에이전트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파트너 생태계 확장 및 업스테이지와의 협업을 통해 AI 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

마케팅 전문 기업 인크로스는 생성형 AI 배너 제작 에이전트 '리사이즈에드'를 개발·운영하며 원본 디자인 파일 하나만 업로드하면 다양한 광고 플랫폼 규격에 맞춰 배너를 자동 변환·생성하는 등 마케팅 자동화 혁신을 이끌고 있다.

SK네트웍스는 AI 사업 혁신의 토대 위에서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과 네트워크 확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글로벌 기술 네트워크 '하이코시스템'을 통해 세계 각지의 석학, 기술 전문가, 유망 스타트업과의 협력 관계를 넓혀왔으며, 'SK네트웍스 AI WAVE'와 같은 오픈 이노베이션 행사를 통해 다양한 혁신 기업과 투자자들이 모여 AI 산업의 미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영층의 AI 생태계 확보를 위한 행보도 눈에 띈다. 최성한 사업총괄 사장은 올해에도 디베시 마칸 아이코닉커피 탈 설립자, 사라 프라이어 오픈AI CFO, 아르튀르 멘슈 미스트랄 AI CEO 등 글로벌 기술업계 주요 인사들과 연이어 만남을 가지며 AI 시장의 전망과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AI 중심 사업주회사로서 사업 혁신, 생태계 확장, 구성원 역량 내재화가 모두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AI 전략 방향성 아래에서 내부 구성원들의 탄탄한 AI 역량과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혁신 사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신제품

삼성전자 32형 '스페이셜 사이니지'

삼성 VXT 신기능 대거 탑재

삼성전자가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32형 '스페이셜 사이니지' 신제품을 출시한다.

2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 스페이셜 사이니지'는 회사의 독자 기술인 '3D 플레이트'를 적용해 3D 전용 안경 없이도 마치 화면 안쪽에 또 하나의 공간이 있는 듯한 입체감을 제공하는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선보인 85형 제품에 더해, 소규모 상품의 전시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32형 신제품을 선보이며 라인업을 확대했다.

32형 신제품은 FHD(1,080x1,920) 해상도와 9:16 화면비를 적용해 신발, 주얼리 등 전시 상품의 정면·측면·후면 등을 아우르는 360도 회전 영상을 실감나게 구현할 수 있다. 49.4mm의 얇은 두께에도 불구하고 마치 화면 안쪽에 또 하나의 공간이 있는 듯한 입체감을 구현하며, 제품을 진열하지 않고도 실물을 보는 듯한 생생한 경험을 선사한다.

스페이셜 사이니지를 비롯한 삼성 사 이니지 제품의 사용 편의성과 운영 효율을 높여주는 삼성 VXT도 신기능을 대 거 탑재했다.

아울러 삼성 VXT의 원격 관리와 콘텐츠 운영 기능도 대폭 강화됐다. 연결된 스크린의 밝기, 음량, 전원 등을 미리 설정한 후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 자동으로 원격 관리할 수 있는 스케줄링 기능이 새롭게 적용됐다. /차현정 기자 hyeon@

한화솔루션, 전 사업 흑자전환

1분기 매출 3.8조, 영업이익 926억 미 태양광·케미칼 부문 수익 개선

한화솔루션이 올해 1분기 전 사업 부문에서 흑자를 냈다. 미국 태양광 사업은 통관 차질 해소 이후 공장 가동과 모듈 판매가 회복됐고 케미칼 부문도 비수익 사업 정리와 생산 효율화 효과가 더해지며 수익성 회복을 이끌었다.

한화솔루션은 28일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3조8820억원, 영업이익 926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25.4%, 영업이익은 205.5%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025년 2분기 이후 3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다.

사업 부문별로는 신재생에너지 부문 매출 2조1109억원, 영업이익 622억원으로 집계됐다. 계절적 비수기에도 2분기 연속 2조원대 매출을 유지했다. 지난해 발생한 미국향 셀 통관 지연 이슈가 해소되면서 현지 공장 가동이 정상화됐고 설계·조달·시공(EPC) 프로젝트 공정 진행 확대도 모듈 판매량도 늘었다.

미국 내 정책 환경도 실적에 영향을 줬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2월과 4월 인도·인도네시아·라오스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 103~249% 수준의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예비판정을 내렸다.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서 현지 생산 기반을 갖춘 기업의 판매 여건이 개선되는 흐름이다.

2분기에는 미국 내 수요를 바탕으로



한화 본사 전경. /한화솔루션

모듈 판매 확대와 가격 인상이 추진된다. EPC 프로젝트 물량 증가와 개발자 산 매각까지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케미칼 부문은 매출 1조3401억원, 영업이익 341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023년 3분기 이후 2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비수익 사업 정리와 생산 라인 합리화, 운영 효율화가 수익 구조 개선으로 이어졌다.

폴리염화비닐(PVC) 해외 사업은 흑자로 전환됐고 가스소다 사업은 전력비용 절감 효과가 반영됐다. 첨단소재 부문은 매출 2856억원, 영업이익 12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3%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태양광 소재는 원가 구조 개선과 미국 시장 판매 확대가 반영됐고 경량복합소재는 해외 수출 물량 증가와 환율 영향이 더해졌다. /원관희 기자 wkh@

LG전자, TV 신제품 ESG 인증 줄이어

카본트러스트 등 ESG 경쟁력 입증

LG전자 2026년형 TV 신제품이 국내외 유력 인증기관으로부터 탄소 저감, 플라스틱 감축, 재활용 소재 사용 등 ESG 관련 세 가지 인증을 잇따라 획득했다.

LG전자는 2026년형 올레드 TV가 최근 영국 비영리 인증기관 '카본트러스트'로부터 '탄소 발자국' 인증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프리미엄 TV의 대명사인 LG 올레드 TV는 2021년부터 6년 연속 탄소 발자국 인증을 획득하며 ESG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카본트러스트는 제품 생산부터 유통, 사용, 폐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탄소 발자국 인증을 부여한다. 특히 기존 동급 모델과 비교해 탄소 발생량이 감소한 제품에는 '탄소 저감' 인증을 수여한다. 2026년형 LG 올레드 TV는 G6(83/77/65형) 모델이 탄소 저감 인증을 받았다. 또 LG전자가 올해 출시한 올레드 신제

품 전 모델(W6·G6·C6·B6)은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인 인터텍의 '자원효율 인증'을 획득해 제품의 지속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 인증은 ▲재료사용 효율성(재활용 설계, 유해물질 저감, 수리 용이성 등) ▲에너지 효율성 ▲재활용 소재 사용 등 엄격한 심사에서 제품의 지속 가능성을 입증해야만 받을 수 있다.

올레드 TV는 별도의 백라이트가 없어 LCD TV 대비 필요한 부품이 적다. LG전자는 여기에 더해 가벼운 복합섬유 소재를 올레드 TV에 적용해 같은 크기의 주요 브랜드 LCD TV보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40% 수준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LG전자가 올해 올레드 TV 제조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사용량은 동일한 수량의 LCD TV 대비 약 1만5000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레드 TV뿐만 아니라 LG전자의 프리미엄 LCD TV인 마이크로 RGB 에보도 우수한 에너지 효율 설계 등을 인정받아 자원효율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차현정 기자

21년 베일 벗는 모태펀드 성적표... “출자 넘어 성장 연결”

KVIC, 내달 수익률 첫 공시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컨스텐호텔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KVIC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컨스텐호텔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KVIC

‘1000만이 훌쩍 넘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 투자한 모태펀드의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

2005년 모태펀드 운용기관으로 출발한 한국벤처투자(KVIC)가 설립 이후 처음으로 투자 수익률을 5월에 일반에게 공개한다. 국민 혈세로 창업·벤처투자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모태펀드의 수익률이 21년만에 드러나게 되는 셈이다.

이대희 한국벤처투자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컨스텐호텔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수익률 공시는 5월에 예정하고 있는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 회의에 맞춰서 공개할 계획”이라며 “다만 얼마나 자세하게, 어떤 분야별로 공개할지 등은 중소벤처기업

부와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기부 장관이 주재하는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는 13개 출자 중앙부처와 민간위원 등 약 20명 정도로 구성됐다. 기존 10개 출자부처에서 올해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분리된 우주청, 국

민안전계정을 운영하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추가됐다.

이대희대표는 “한국벤처투자는 지난해 20주년을 맞았다. 모태펀드가 그동안 출자에 집중하며 인프라를 깔아놨다면 앞으로는 출자를 넘어 기업의 성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에 충실한 ‘투자 플랫폼’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태펀드는)자금 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한데 수도권 중심에서 비수도권으로 확장해 지역의 벤처 생태계를 살리고, 모태펀드의 글로벌 위상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벤처시장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연금제도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지난해 4000억원 규모의 지역 모펀드 4개를 조성한 데 이어 올해에는 4500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 5개를 추진해 비수도권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대표는 “지역투자의 경우 과연 투자할 기업이 있느냐, 투자가 먼저 이뤄

져야하느냐 논쟁이 있다. 투자에는 모태펀드가 앞장서겠다. 이를 위해 BNK금융지주와 MOU를 했고 다른 지역의 금융기관과도 추가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투자·진출 지원도 더욱 확대한다. 올해 2월 기준으로 글로벌펀드는 84개까지 늘어났다.

재외동포가 중심이 된 제주스타트업펀드가 조성됐고 미국 실리콘밸리에는 스타트업벤처캠퍼스(SVC)가 문을 열면서 KVIC등 관련 기관들이 입주해 한국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종합 지원도 본격 시작했다.

이대표는 “KVIC가 글로벌펀드에 출자를 시작한 것이 2013년이다. 10년이 지나는 사이 해외에선 모태펀드가 ‘소버린(Sovereign)펀드’ 역할을 하며 벤처캐피탈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인지도가 갖게 됐다. 협력을 원하는 해외 수요도 많다. 해외 역시 인프라를 깔아 놓은 만큼 진출을 돕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창업진흥원

이노웨이브 수요처 모집

대·중견기업-스타트업 협업 지원

창업진흥원이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인 ‘이노웨이브(Inno-Wave)’ 수요기업을 내달 13일까지 모집한다.

28일 창진원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시작한 이노웨이브는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등 수요기업과 초격차 창업기업 간 공동 실증 및 사업화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는 인공지능(AI), 로봇, 이동기술, 친환경·에너지 같이 국가 미래를 이끌어갈 창업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수요기업과 창업기업이 협업 과정을 기획하고 발표하는 ‘연합(원팀 컨소시엄)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올해는 해당 방식을 유지하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협업자금도 최대 1억원으로 상향했다. /김승호 기자

“선정 안 되는 게 낫다”... 규제샌드박스에 갇힌 청년창업

중소 옴부즈만·중진공

광주 청창사서 규제·애로 간담회
실증특례 후 법령 정비 지연 호소
“혁신 인큐베이터 역할 못 해”

규제 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 온 규제 샌드박스도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장에서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되지 않는게 사업에 유리하다”는 불만 소리가 나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8일 오후 광주 북구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청년 창업가들을 만나 규제·애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옴부즈만과 중진공은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간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오른쪽)이 28일 광주시 북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청년창업가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중기 옴부즈만

담회를 함께 열고 있다.

간담회에서 AI 기반 중개 플랫폼 운영사 A대표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후 법령정비가 되지 않아 ‘데스밸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처간 협력이 장기화될 경우 오히려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

지 않는 편이 유리한 상황도 생긴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증 기간이 끝나가는데도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았다면 기업이 사업을 멈추지 않도록 법령 완비 시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승재 옴부즈만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기대와는 다르게 승인된 실증 특례 사업의 다수가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로는 책임 회피, 부처 간 이견, 입법 미비, 이해 관계 조율 실패로 인해 제도화 전환이 지연되거나 무산되고 혁신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례 적용을 탄력적으로 하거나 법령 정비의 연장 등의 방법으로 규제샌드박스가 더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는 청년창업가들이 창업 초기에 직면하는 행정적 장벽에 대한 애로를 듣고 해결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승호 기자



귀뚜라미

저장식 전기온수기 선택

좁은 공간 설치·동시 온수 사용 가능

귀뚜라미가 저장식 스테인리스 전기온수기 ‘WS시리즈’ (사진)를 새로 출시했다. 28일 귀뚜라미에 따르면 저장식 전기온수기 WS시리즈는 ▲15리터(벽걸이형·언더싱크형) ▲30리터(벽걸이형·언더싱크형) ▲50리터(가로형·세로형) 등 다양한 용량으로 구성돼 장소와 용도에 따라 알맞게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50리터 모델은 기존 대비 제품 길이를 약 19% 줄여 좁은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다.

내구성이 뛰어난 스테인리스 재질의 온수탱크를 적용했으며 고온 부식에 강한 니켈 합금인 인코로이(Incoloy) 히터를 적용해 장기간 깨끗한 온수 공급이 가능하다. 온수탱크 외부는 단열 효과가 뛰어난 고밀도 폴리우레탄 폼으로 감싸 열손실을 최소화했다.

저장식 전기온수기 WS시리즈는 한 대로 싱크대, 세면대, 샤워실 등 여러 곳에서 동시에 온수를 사용할 수 있다. 온수탱크에 적정량의 온수가 내장돼 있고, 사용 중에도 재충열을 통해 온수를 지속 보충해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중소 10곳 중 8곳 “외국인 유학생 채용 의향”

중진공, 취업연계 지원 수요등 조사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채용 정보나 인재 탐색 등에서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477개사와 외국인 유학생(D-2비자) 및 외국인 구직자(D-10비자) 676명을 대상으로 취업연계 지원 수요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28일 내놨다.

D-2비자’는 외국인이 국내 대학 등에서 유학하기 위해 부여받는 체류자

격, ‘D-10비자’는 국내 취업 준비 등을 위해 체류할 수 있는 구직 체류자격을 각각 말한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8.4%는 향후 외국인 유학생·구직자를 ‘채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63.7%는 이들이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채용 과정에서 ‘채용정보 접근 및 적합 인재 탐색의 어려움’(75.9%)이 가장 큰 애로로 조사됐다. ‘공공 주도의 적극적 매칭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63.7%에 이르렀다. 응답기업은 수도권 52.6%, 비수도권 47.4%로 분포돼 있으며, 제조업 비중이 74.8%로 나타났다. /김승호 기자

여성창업경진대회 39대1 역대 최고 경쟁률

44팀 선발에 1712팀 접수

27년 역사의 여성창업경진대회가 역대 최고 경쟁률인 39대1을 기록하며 국내 최고의 여성 창업 등용문임을 입증했다. 28일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기중)에 따르면 ‘2026년 제27회 여성창업경진대회’ 모집 결과 44팀 선발에 총 1712팀이 접수했다. 전년 대비 66% 늘었다.

여성창업경진대회는 국내 유일의 여성창업자 대상 경진대회로, ‘도전! K-스타트업 2024’ 창업리그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한 ‘바이오브릭스’를 비롯해 웹테크 선두주자 ‘이너시아’ 같은 성공 사례를 지속적으로 탄생시키며

해마다 높은 관심과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

올해 가장 주목할 점은 기술 집약적 산업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이다.

기술·혁신 분야에선 빅데이터·AI(454팀)이 단일 항목 중 가장 많은 참여를 기록했고, 바이오·헬스케어(141팀)와 웹테크(108팀) 등 고난도 기술 창업에도 관심이 높았다. 특히 여성의 전문성이 돋보이는 라이프·소비재 분야에서도 K-푸드(231팀), 여성·가족 케어(226팀), K-뷰티(130팀) 등에 아이디어가 쏟아지며 ‘여성 특화’ 비즈니스 모델의 저력을 확인시켰다. /김승호 기자

What Makes A Truly Comfortable & Trustworthy Sleep



50년을 지나, 이제 당신의 일상이 됩니다.

그랜드침대

편안함의 전통, 그랜드침대의 품격으로 완성됩니다.

www.grandbed.com / Tel. 031-945-2233



영상생성 AI, 잦은 업데이트에 불편... '워크플로 자동화' 주목

영상 제작사 67% “현재 사용하는 AI툴 서비스 지속성 신뢰 어려워”
복수 AI 병행으로 비용·관리 부담
모픽, 설정된 제작과정 재사용 가능
새로운 AI 모델 도입해도 즉시 적용
플랫폼 경쟁. 성능 → 운영효율 이동

영상 생성 인공지능(AI)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잦은 모델 변화로 제작 현장의 부담이 커지자 ‘워크플로 자동화’가 대안으로 부상한다.

28일 시장조사업체 포춘비즈니스인사이드에 따르면 글로벌 AI 영상 생성 시장은 2034년 약 33억50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문제는 기술 고도화 속도다. 최근 고성능 영상 생성 모델이 잇따라 출시되며 선



영상 제작 AI 플랫폼 모픽 ‘워크플로 자동화’ 대표 이미지.

/모픽

택지는 늘었지만, 서비스 중단과 잦은 업데이트로 제작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오픈AI의 영상 생성 모델 ‘소라’가 올해 3월 서비스 중단에 들어가면서 해당 모델을 기반으로 제작 시스템을 구축했던 제작사들은 작업 공정을 전

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영상 제작사들은 특정 모델에 의존하기보다 복수의 AI를 병행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비용과 관리 부담을 동시에 키운다는 지적이다.

영상 제작 AI 플랫폼 모픽이 국내 웹툰 및 드라마 제작사 2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7%가 “현재 사용하는 AI 툴의 서비스 지속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현장에서는 새로운 모델이 등장할 때마다 제작 파이프라인 전체를 재구성해야 하는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 모델별 가격 체계와 기능 차이도 작업 표준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워크플로 자동화’가 부상하고 있다. 모픽은 기존 제작 과정을 플랫폼 내에서 그대로 구현하고 표준화해 저장할 수 있는 ‘워크플로’ 기능을 강화했다. 한번 설정한 제작 과정은 반복 입력 없이 재사용할 수 있고, 새로운 AI 모델 도입 시에도 설정 변경만으로 즉시 적용 가능하다.

실제 한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사는 복

수의 AI 툴을 사용하던 환경에서 모픽을 도입한 뒤 별도 교육 없이 즉시 실무에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직관적인 사용자 환경이 기술 도입 장벽을 낮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AI 기반 콘텐츠 제작이 본격화되면서 플랫폼 경쟁도 ‘성능’에서 ‘운영 효율’ 중심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기술 자체보다 이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작 환경 구축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이디 카나니 모픽 대표는 “국내 제작사들이 여러 AI 모델을 동시에 운영하며 비용과 작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워크플로 기능을 통해 반복 작업을 줄이고 제작 표준을 구축하면 새로운 모델이 등장해도 콘텐츠 구현 자체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SKT, ICLR서 독자개발 추론기술 공개

〈세계 3대 AI 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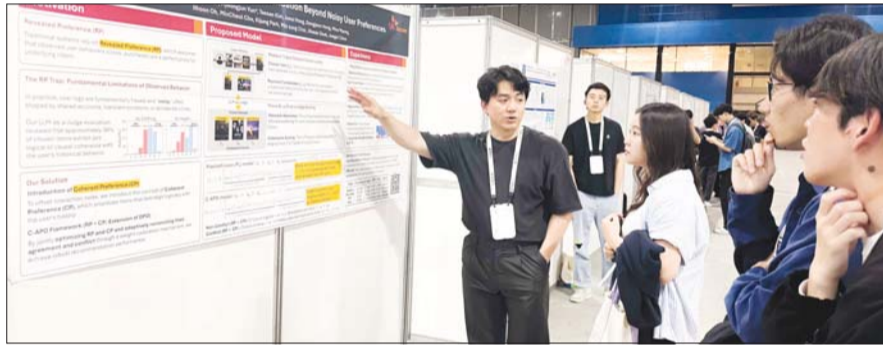
AI 추천모델 관한 논문 발표
‘충돌 선호 최적화’로 상품 추천
추천 결과 논리적 설명 강화도

SK텔레콤이 국제 학술 대회에서 독자 개발한 기술을 활용한 고객 선호도 최적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일시적 검색에 대한 선호도를 구분해 추천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이다. 향후 에이전트 대고객 추천 시스템에 적용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국제 학회 ‘ICLR 2026’에서 AI 추천 모델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세계 3대 AI 학회로 꼽히는 ICLR은 AI 기술 발전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대표 무대로 평가받는다. 발표 기술이 수년 내 산업 현장에 적용되거나 후속 연구와 제품 개발의 기준점이 된다.

SKT가 발표한 논문은 독자 개발한 ‘충돌 선호 최적화(C-APO)’가 핵심으로 모델이 스스로 최적의 정답을 찾아가도록 돕는 기술이다. 상충하는 선호를 걸러내고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정확하게 추천하는데 활용된다.

기술 개발을 위해 고객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보여준 행동 패턴을 분석해, 꾸준히 관심을 보여준 취향을 ‘일관된 선



SK텔레콤 연구원들이 ICLR 2026에서 참가자들에게 AI 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K텔레콤

호’로 정의했다. 예를 들어 고객이 특정 서비스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조회하거나 이용해 왔다면 이를 고객의 실제 관심사에 가까운 선호로 보는 방식이다.

한두 번 클릭했거나 우연히 조회한 서비스 또는 일시적인 호기심으로 이용한 콘텐츠는 표면적 선호로 구분한다. 두가지가 모두 일치하면 학습 가중치를 높여 추천 정확도를 높이고, 충돌할 경우 노이즈로 판단해 가중치를 낮추도록 설계했다.

기존 추천 시스템은 일시적 행동도 고객의 취향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실제 취향과 다른 추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았다. SKT의 독자 개발 기술을 활용하면 전체 이용 이력 속에서 반복성과 맥락을 함께 따져 더 신뢰도 높은 ‘일관된

선호’를 찾아낼 수 있다. 일례로 평소 로맨스 영화를 선호하는 고객이 한 번 액션 영화를 시청했을 때 이후 추천이 해당 장르로 치우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해당 기술을 통해 일시적 반응과 실제 취향을 구분해 일관된 추천이 가능하다.

무엇을 추천할지에 그치지 않고, 추천 결과를 보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했다. 향후 AI 추천 서비스에서 추천의 품질뿐 아니라 설명 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이용 맥락 해석 ▲추천 후보 생성 ▲결과 검증·조정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에이전트 방식의 추천 시스템에 적용할 예정이다.

/조민선 기자 msjo@

NC AI, ‘산업특화 AI’ 노벨상 기관에 소개

스웨덴 왕립 과학한림원 관계자 방문

NC AI는 28일 노벨상 주관 기관인 스웨덴 왕립 과학한림원 관계자들이 자사를 방문해 AI 기술과 산업 적용 사례를 참관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고 유럽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NC AI는 이번 자리에서 피지컬 AI와 에이전트 AI를 중심으로 산업 현장에 최적화된 핵심 기술을 공개했다. 제조, 유통, 국방 등 주요 산업 환경에 맞춘 실제 적용 사례를 제시하며 산업 전반의 AI 전환 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 트윈 기반 시뮬레이션과 3D 생성 기술이 주요 관심을 끌었다. 북

잡한 산업 설비를 정밀한 디지털 자산으로 구현하고 이를 가상 공간에 재현하는 기술을 통해 현실 환경을 그대로 반영한 AI 학습 구조를 선보였다.

NC AI는 객체의 무게, 마찰, 탄성 등 물리적 특성을 반영한 월드모델 학습 기술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단순 데이터 분석을 넘어 실제 환경을 재현하는 피지컬 AI 구현에 최적화된 기술이라는 평가다.

회사는 피지컬 AI와 에이전트 AI를 양측으로 산업별 맞춤형 AI 모델을 고도화하고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교류를 계기로 유럽 연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글로벌 산업 AI 생태계에서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최빛나 기자

“지니TV VOD 소장하면 쿠폰·굿즈 혜택”

KT, 가정의 달 맞아 프로모션 진행
왕사남·호퍼스·잔망루피 등 대상

KT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니 TV 주요 콘텐츠 대상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28일 밝혔다.

먼저 영화 ‘왕과 사는 남자’ VOD 론칭 기념 혜택이 마련됐다. 소장용 VOD 구매 고객 전원에게 지니 TV VOD 3000원 쿠폰을 증정한다. 또한 추첨을 통해 총 60명에게 영화 촬영 장소인 강원 지역의 여행 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디즈니·픽사 애니메이션 ‘호퍼스’ 소장용 VOD를 구매한 고객 1600명에게는 비버 키팅 굿즈를 제공한다.

지니 TV에서 자체 제작한 오리지널 드라마 ‘허수아비’를 시청한 고객에게는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를 비롯한 경품을 추첨으로 제공한다. 응모자 전원에게는 메가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증정한다.

가족 대상 전용 특집관도 운영한다. ‘메소드 연기’, ‘아바타: 불과 재’, ‘끝장수사’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환상’, ‘클라이맥스’



모델들이 지니 TV ‘왕과 사는 남자’ 프로모션을 소개하는 모습.

등이다.

영유아동 전용 서비스 ‘지니 TV 키즈랜드’에서는 어린이날 맞이 기획전을 선보인다.

오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잔망루피’ 소장용 패키지를 구매한 고객 중 200명을 추첨해 ‘잔망루피 피크닉 세트’를 증정한다. 같은 기간 ‘뽀로로’, ‘핑크퐁’, ‘캐지! 티니핑’ 등 2000여 편도 무료 제공한다. 어린이를 위한 오프라인 체험 행사도 마련했다. 5월 4일부터 이틀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국제 아동도서상 ‘2026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작 ‘상상금지!’ 상영회를 개최한다.

/조민선 기자

과기부 “알뜰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 확대 논의”

데이터 소진 후에도 400Kbps 속도로 메신저, 지도검색 등 이용 가능해져

정부가 국민의 데이터 사용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알뜰폰 데이터 안심옵션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알뜰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자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데이터 안심옵션(QoS)은 기본 데이터를 모두 쓴 뒤에도 일정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쓰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데이터 제공량을 소진하면 추가 과금 우려로 이용이 사실상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소진 후에도 400Kbps 속도로 이용 가능하다. 이는 기본적인 메신저 이용, 지도 검색 등이 가능한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이통3사의 모든 LTE·5G 요금제에 이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알뜰폰은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류제명 차관은 “알뜰폰 가입자 중 데이터 안심옵션이 없는 이들이 약 500만 명 된다”며 “알뜰폰은 요금구조가 이통3사보다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라며 “영

업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업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취약한 구조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에서 서비스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400Kbps 속도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생색내기 아니냐”며 최소 속도를 1~2Mbps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류차관은 통신비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속도 요건을 높이면 통신사 요금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우선 데이터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선을 그었다.

/조민선 기자

“어닝서프라이즈 기대” vs “하반기 모멘텀 둔화 가능성”

증권가 SK하이닉스 전망

6곳, 목표주가 200만원 이상 상향
H 노무라, 234만원으로 가장 높아
BNK “추가 매수보다는 관망 필요”

#. 직장인 김광중(가명·37)씨는 SK하이닉스 주가가 연일 최고가를 다시 쓴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속이 쓰리다. 그는 지난해 2월 말 100만원대인 삼성전자 주식을 5000만원어치 샀다가 이달 중순 110만원일 때 모두 팔았다. 오를 대로 올랐다고 판단해서다. 그런데 지금은 130만원대까지 올랐다. 김씨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다”며 “지금이라도 다시 사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국내 증시의 ‘대장주’인 SK하이닉스를 놓고 김씨처럼 고민에 빠진 투자자들이 많다. 최근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어서다. 28일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보다 0.62% 오른 130만원에 마감했다. 장 중에는 132만8000원까지 치솟았다. 외국인이 이달에만 SK하이닉스 주식을 1조3718억원(순매수) 넘게 끌어담았다. 개인들은 같은 기간 3조5062억원 어치를 팔았다.



ChatGPT로 생성한 SK하이닉스 HBM 반도체와 AI 수요 확대를 형상화한 이미지.

증권가의 시선은 엇갈린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 통해 “SK하이닉스의 하반기 모멘텀이 둔화될 것”이라고 밝히며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보유’로 낮췄다. 추가 매수보다는 관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목표주기도 상향하지 않고 기존 130만원을 유지했다. 최근 주요 증권사들이 200만원을 웃도는 목표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이 연구원은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2조5700억원, 37조6100억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각각 1%, 3% 상

회했다”면서도 “최근 40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대하던 시장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이익률은 D램 77.5%, 낸드 53.2%로 추정되지만, 평균판매가격(ASP)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 분기 대비 수익성 개선 폭은 제한적이었다”며 “D램과 낸드 모두 단위당 생산비용 상승 영향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설비 투자 증가세가 3월 이후 둔화되고 있고, 현물가격과 고정거래가격 간 격차도 축소되며 ASP 상승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사이클

후반 진입과 하반기 모멘텀 둔화를 고려하면 SK하이닉스는 저 PER 종목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주주환원 정책과 ADR 발행 등 호재가 있지만 주가는 박스권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반면 SK증권, 메리츠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다올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6곳은 이달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주가를 200만원 이상으로 올려잡았다. 증권사들이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보는 근거는 고공행진하는 실적이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SK하이닉스의 2026년과 2027년 순이익 추정치를 각각 225조원, 334조원으로 상향한다”며 “1분기 영업이익은 37조 6000억원으로 최근 컨센서스(시장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지만, 성과급 충당을 감안한 수정 영업이익은 42조원에 달해 실질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노무라증권도 지난 24일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기존 193만원에서 234만원으로 높였다. 노무라가 제시한 목표주가는 국내외 증권사가 내놓은 목표주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노무

라증권은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라 실적 전망이 계속 오르고 있고 장기공급계약(LTA)을 통해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봤다.

노무라증권은 보고서에서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 전망을 반영해 2026년 및 2027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9%, 4%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영업이익 전망치는 2026년 256조2280억원에서 279조5480억원으로, 2027년은 365조 4290억원에서 378조8620억원으로 수정했다. 각각 전년 대비 492%, 36% 증가한 수치다. 노무라증권은 “메모리 업체들은 주요 고객사와 물량·가격·선급금 조건 측면에서 유리한 LTA를 논의 중이다”며 “계약이 성사돼 메모리 산업의 새로운 사업 모델로 자리 잡는다면 메모리 업체의 높은 수익성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미래에셋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해 “중앙처리장치(CPU)가 강세를 보이면서 D램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166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퇴직자금 노린 핀플루언서 ‘사기 주의보’

(금융+유명인)

금감원, 실시간 감시체계로 적발
1인당 평균 피해 금액 약 1.8억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50~60대의 퇴직자금을 주로 노리고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도입한 ‘AI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통해 핀플루언서 관련 불법 금융행위를 점검해 불법 핀플루언서들이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금융회사를 가장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지능화된 디지털 사기 수법에 취약한 50~60대에 피해가 집중됐다.

올해 1~4월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제보 및 민원 17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70.6%(12건)가 50대와 60대 중장년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주로 노후를 위해 모아둔 퇴직자금을 한꺼번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약 1억8000만원에 달했다. 피해 금액은 적게는 2500만원부터 많게는 3억8000만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가 47.1%(8건)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불법 핀플루언서의 수법은 크게 세 가지였다. 유명 핀플루언서의 영상을 도용해 가짜 채널을 개설한 것이 대표적인 수법이다. 실제 채널의 프로필과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고 기존 영상을 짜깁기하는 등 실제 채널로 착각하게 만들어,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피해자들을 유도했다. 실제 핀플루언서 영상 아래 댓글창에 해당 인물인 척 위장해 “고급 정보 리딩방이 있다”며 앱 설치 링크나 사이트 주소를 게시하고 모집 후 댓글을 삭제했다.

이밖에 금융회사와 함께하는 투자프로젝트라며 별도의 계좌로 투자금을 편취하고 잠적한 경우도 있었다. 아예 기

존의 인기 해외 스포츠나 게임 유튜브 채널을 사들여 주식 채널로 바꾸고 사기를 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금감원이 기존에 수작업으로 했던 모니터링을 AI 기반 실시간 체계로 전환하면서 진행됐다. 금감원이 모니터링 대상 채널의 신규 영상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AI가 음성·자막을 추출해 위법 정도를 분류한다. 이후 판결 결과와 제보·시장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행정 조치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지 않으며, 단체 채팅방을 통해 투자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SNS 등에서 경제TV, 투자연구소 등의 명칭으로 투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나 유사 투자자문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허정은 기자 zelkova@

코스콤, AI로 개발 효율·운영 최적화

5세대 PowerBASE 시스템에 적용

코스콤 금융사업본부는 개발 효율화, 운영 최적화, 외부 사업화 등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AI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개발·운영 체계를 정착시키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개발 효율화 영역에서는 데이터 구조와 업무 규칙을 기반으로 한 코드 생성, 영향도 분석 자동화, C 기반 시스템의 Java 전환 등에 AI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대형 언어모델(LLM)을 활용해 코드 생성과 분석을 자동화하고, 변경 사항에 따른 영향 범위를 자동으로 파악하는 등 개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구축 중인 5세대 PowerBASE 시스템에도 요건 분석부터 코드 변환, 테스트까지 전 과정에 AI를 적용하고



코스콤 전경.

있다. C 코드를 Java로 변환 및 테스트하는 전 과정에 AI 기반 자동화를 도입해 반복 작업을 줄이고 품질 안정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안정적인 시스템 전환을 위해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코스콤은 AI를 통해 현재 개발 생산성이 약 30% 향상된 가운데, 향후 운영 영역까지 확대 적용 시 전반적인 업무 효율이 약 40~50%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금투협, 레버리지 인버스 사전 교육 개설

심화교육 1시간 과정 이수 필수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새롭게 출시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거래 전 이수해야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 상품 거래 사전교육’ 온라인 과정을 개설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과정은 국내 우량주 단일종목을 기초로 하는 레버리지(±2배) 상품의

출시(5월 22일 예정)에 따라 레버리지 상품의 리스크가 높은 점을 고려해 투자자가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평균 시가총액 비중 10% 이상, 평균 거래대금 비중 5% 이상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국내 우량주에 한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허용됨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내달 출시될 예정이다.

국내 및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이번엔 새로 개설되는 심화교육 1시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국내 및 해외 레버리지 ETP(ETF, E-TN 등 상장지수상품) 매매 경험이 있는 경우 이번엔 개설된 1시간 과정을 이수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국내외 레버리지 ETP 가이드(1시간)를 포함해 총 2시간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수강은 28일부터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하은 기자

한투증권, 우수 벤처기업 발굴·육성

한국벤처기업협회와 업무협약

한국투자증권은 한국벤처기업협회와 우수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유망 벤처기업을 조기에 발굴해 육성하고 성공적인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는 등 벤처 기업의 성장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한국투자증권의 전문적인 금융 역량을 심분 활용해 유망 기업의 성장을 돕고 건강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왼쪽)과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업무협약(MOU)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은 기자

김태균 “웨스팅하우스 넘는 독자 노형 ‘반디’로 승부수”

(한국전력기술 사장)

(블록형 SMR)

캔드모터 냉각재펌프 등 기술 접목
부유식 발전선·원자력 추진선 최적
기본설계 단계... 2038년 상용 운전
올해 3배 인원 채용... 우수인재 보강

“기술 자립은 이뤘지만, 지식재산권(IP) 문제로 수출이 제한적인 ‘사업적 비자립’ 상태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웨스팅하우스와 관계없는 우리만의 독자 노형 ‘반디(BANDI)’를 앞세워 설계 회사가 직접 노형을 파는 ‘엔지니어링 펌프리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김태균 한국전력기술 사장은 지난 27일 김천 본사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전기술의 미래 사활을 건 독자 노형 개발을 통해 기술자립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한전기술이 추구하는 미래의 핵심 가치로 독자 노형 해양용 SMR ‘반디(BANDI)’를 꼽았다. 한 여름 밤 어둠을 밝히는 반딧불에서 이름을 딴 이 모델은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



남금회 한전기술 사업개발팀장이 27일 경북 김천 한전기술 홍보관에 마련된 반디모형 앞에서 해양용 SMR ‘반디(BANDI)’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원형 사진엔 김태균 한국전력기술 사장. /한전기술

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반디는 기존 경수로 기술을 바탕으로 캔드모터 냉각재펌프 등 혁신 기술을 접목한 블록형 SMR이다. 특히 해양의 6-자유도 운동에 대비한 설계로 부유식 발전선과 원자력 추진선에 최적화됐다. 2012년부터 시작된 반디 개발은 현재 선박추진용 기본설계 단계에 있다. 2027년

사업화 모델 확보, 2030년 표준설계 완료를 거쳐 2038년 상용 운전을 시작한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김 사장은 “베트남 비텔(Viettel)과 데이터센터용 SMR 공동 연구를 협의 중이며,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사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단순 용역사를 넘어 독자 노형을 가진 기술 리더로 거

듭나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현재 5% 수준인 설계 마진을 10% 이상으로 현실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90년대 11%에 달했던 설계비 비중이 현재 5%대까지 떨어졌다”며 “글로벌 설계사인 벡텔 등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가혹한 환경”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설계가 우수해야 시공과 유지보수비가 준다”며 마진을 10% 회복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 사장은 “탑코리아 정신을 유지하되, 독자적인 실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을 직접 공략하겠다”며 “한전기술의 위상을 단순 용역사에서 글로벌 기술 리더로 격상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를 토대로 우수 인재 보강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탈원전 시기 약 8년 간 발생한 인력 단절을 메우지 못하면 세계 1위 경쟁력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김 사장은 “작년에는 예년보다 2배, 올해는 3배의 인원을 뽑을 것”이라며 “베트남과 체코 등 해외 사업이 본궤도에 올

랐을 때 사람이 없어 기회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 기업들이 역대 연봉으로 인재를 데려가는 현실에서 우리도 마이스터 제도 등 실력 있는 엔지니어를 예우하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전기술은 원전 설계의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시장도 동시 공략한다. 특히 기존 화력발전 설계 인력을 미래 에너지인 해상풍력 분야로 재교육해 배치하고 있다.

아울러,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서비스 ‘넥사(NEXA)’를 통해 3년 내 도면 자동 생성 등 지능형 설계 체계를 완성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도 공개했다.

김 사장은 “우리 회사의 성공 비결은 ‘공부하는 문화’였다”며 “지방 이전 이후 인력 확보가 쉽지 않지만, 최고 수준의 교육 투자와 설계 가치 제고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술 리더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원전해체 현장에 원격제어 로봇 투입 준비

‘방사선환경 실증기반 구축’ 공모에
원복원 선정... 총사업비 241억 규모
실증센터·맞춤형 교육체계 등 구축

원전해체 현장에 투입될 원격 제어 로봇의 성능을 검증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규모 인프라가 구축된다.

재단법인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이하 원복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하는 총사업비 241억원 규모의 ‘방사선환경 실증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경북·경주·부산·울산 등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원전해체 기술 자립과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2026년 4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4년간 진행되며, 핵심 과제는 ▲방사선환경 로봇 실증센터 구축과 ▲현장형 전문 인력 양성 기반 마련이다.



중수로해체연구소 조감도.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사업비 중 약 198억원이 투입되는 ‘방사선환경 로봇 실증센터’는 실제 원전해체 상황과 유사한 방사선 모사 환경에서 상용 규모의 원격해체 장비를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곳에서 장비의 작동 수명과 정밀도 등 신뢰성 평가를 수행해 국내 원전해체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약 42.4억원을 들여 특성화고 학생부터 산·학·연 재직자까지 아우

르는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실제 장비 실습 중심의 교육 과정을 통해 해체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한다는 구상이다.

원복원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경수로 mock-up(모형) 시설을 구축하고 방사선 측정 로봇 ‘크리독(KRIDOG)’을 개발하는 등 관련 기술을 선도해왔다. 특히 2026년 하반기 경주 양남면에 준공 예정인 중수로해체연구소와 이번 신규 사업을 연계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권병훈 원복원 원장은 “이번 사업은 기술 실증 인프라와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방사선환경 로봇 실증센터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원전해체 시장을 선도하는 산업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싱가포르 국제식품박람회’ 행사장 내 마련된 한국관.

/aT

싱가포르·우즈벡서 ‘K-푸드’ 수출길 연다

aT, 싱가포르서 1128만弗 업무협약
우즈벡 박람회서 102건 바이어 상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동남아·중양아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K-푸드 및 외식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전략적 거점의 한 축이다.

28일 aT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중하순 우즈벡스탄과 싱가포르 현지박람회에서 행사장 내 ‘한국관’을 설치하고, 국내 수출업체와 바이어 간 업무협약 주선에 나섰다.

지난 21~24일 나흘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싱가포르 식품·음료 박람회’(FHA Food&Beverage 2026)에서는 59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냈다. 행사장에 마련된 한국관에는 수출업체 41곳이 참여했다. 신선식품과 전통 장류, 스낵, 음료 등을 소개했다. 공사는 ‘건강·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특히, 현지의 소비 추이를 반영한 품목을 전략적으로 배치했다. 저당·고단백 소비 동향과 프리미엄 식품 선호를 고려해 건강기능식품과 유기농 스낵을 전면에 내세웠다. 아울러 할랄인증 식품 및 인기 길거리 음식 시연·시식 행사도 운영했다.

제주산 한우와 한돈을 활용한 시식권 경험 이벤트도 진행했고, 신규 품목에 대한 현지관심을 높이기 위한 체험형 홍보를 진행했다.

한국관에선 박람회 기간 총 854건·5917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이 이뤄

졌다. 이 중 23건은 1128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으로 이어졌다.

싱가포르는 K-푸드의 수출확대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3월까지 대싱가포르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딸기, 돼지고기, 소스류를 중심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9% 늘었다.

aT는 앞서 18~19일 우즈벡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우즈벡스탄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Central Asian Franchising Expo in Tashkent)에도 참가했다.

이 행사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심 있는 바이어들이 대거 참석했다. 중앙아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외식기업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관에는 그중 수요층이 두터운 커피, 피자 등의 대중적인 프랜차이즈업체 3개 업체가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행사장에서는 총 102건의 바이어 상담이 이뤄졌다. 일인용 피자를 주력으로 하는 피자 브랜드는 편리함과 가격 경쟁력으로 후속 상담 요청이 쇄도했다. 또 카페 전문 브랜드는 스낵류 PB 상품과 함께 현지에서 생소한 드립커피 제품에 대한 문의가 지속됐다.

우즈벡스탄은 이미 신흥시장으로 떠올랐다. ‘서울문’이라는 한국의 거리를 모방한 상권이 조성될 정도로 한국 문화에 대한 친밀도가 높다. 이미 중심 상권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K외식 브랜드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마사회·농진청 말산업·축산 성장 협력

말 교감 치유 확산 등 3대 분야 추진

한국마사회가 농촌진흥청과 ‘말산업 및 축산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8일 마사회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주 경기 과천 마사회 본관에서 협약을 맺고 ▲말 교감 치유 활성화 ▲승용마 실증·조련 및 보급 확대 ▲국산 열풍건조 생산·유통 기반 구축 등 3대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기관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말교감 치유를 비롯해 말-원예 융·복합 치유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 지원에 나선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수산자원공단, ‘바다숲 탄소거래’ 사업 추진

완도·제주 등 전국 20개소 선정

한국수산자원공단이 ‘2026년 바다숲 탄소거래 시범사업’의 사업지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탄소중립 실현 및 어촌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둔다.

28일 공단에 따르면 전남 완도와 제주를 비롯해 전국 20개소에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한다. 바다숲 탄소거래 유형 15개소와 어업인 블루크레디트 유형 5개소이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과 ‘수산자원 조성’을 연계하는 해양수산부의 정책사업이다. 바다숲 조성·관리 및 해조류 양식을 통해 탄소흡수원(해조류·해조류)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생태계 회복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동시에 관련 어업인의 새로운 수익까지 창출하는 탄소거래 시장 형성을 목표로 한다.

공단은 2026년도 목표 관련해, 사업 프로세스를 현장 실증하고 각 해역별 특성화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특히 지난해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해 사업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대폭 강화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모니터링 기법 개선, 참여자 지원사업 컨설팅 도입, 교육프로그램 확대(워크숍, 바다숲 탄소사업 학교 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대한민국 가요 1세대
원조스타 리싸이틀

대전역 앞 아카데미하우스(구)아카데미극장

대한민국 1세대 원조스타 리싸이틀

고향 아줌마
이정표 없는 거리
고향이 좋아



4월 24일 부터
매주 금요일
김상진

나는 행복합니다
이거야 정말
장미빛 스카프



4월 28일 부터
매주 화요일
윤항기

1시30분 이전 입장객 무료입장

대머리 총각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노란샤쓰 입은 사나이



김상희

철없는 아내
청춘
낙엽따라 가버린 사랑



4월 30일부터
매주 목요일
차승민
아버지의 대를 잇는 가수
차도균

대전역 연가
배호 가요제
대상



4월 29일 부터
매주 수요일
이호 / 이명주

마술 쇼



4월 25일 부터
매주 토요일, 일요일
웃음콘서트

짐이된 사랑
버팀목
보고싶어요



여행사 및 단체관람
문의 1544-3235

부산시, '에이지테크' 실증거점 조성... 5년간 270억 투입

과기부 주관 국가공모 최종 선정 4대 추진전략 '부산형 AGES' 수립 첨단 AI 기반 실버경제 산업 육성

부산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해양문화도시 기반의 에이지테크(Age-Tech) 실증거점 조성사업' 국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2030년까지 5년간 총 270억원을 투입해 AI 기반 실버경제 산업을 육성하고, 부산 중심의 실증 거점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은 부산의 고령 인구비중과 해양관광 인프라를 접목해 시니어들이 일상 속에서 첨단 AI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증 환경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지난해 수립한 '초고령사회 부산의 에이지테크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의 비전으로 'AX 기반 글로벌 실버 경제 선도 도시' 약속을 내세우고, 4대 추진 전략 '부산형



'부산형 AGES' 이미지

/부산시

AGES'를 수립했다.

A(AX Expansion)는 돌봄·의료로 넘어 문화·여가·금융 등 생활 전반으로 AI 서비스를 확장하고, G(Ground Testbed)는 5대 앵커랩과 리빙랩을 기반으로 시민 참여형 지역 밀착 실증을 지원한다.

E(Enterprise Scale-up)는 에이지테크 기업의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 S(Spread Global)는 일본·미국·유럽 등 초고령 선진국

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담당한다.

3대 분야 8대 중점 추진 과제도 병행 추진된다. 실증 및 고도화(Reference-Up) 분야에서는 130개 이상의 AI 에이지테크 과제를 발굴·지원하고, 해양관광과 연계해 크루즈·시니어타운 등으로 실증 영역을 넓힌다.

글로벌 진출(Scale-Up) 분야에서는 연평균 23% 성장 중인 글로벌 에이지테크 시장을 겨냥해 45개 유망 기업

의 해외 실증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K-에이지테크' 브랜드 확산을 추진한다.

필드 조성(Field-Up) 분야에서는 5대 앵커랩을 지정·운영하고, 전국 최초 시니어 복합단지인 '하하(HAHA) 캠퍼스'와 연계한 실버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175개 이상의 기업 주도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지역 기업과 공공기관, 수요자가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협력 구조를 바탕으로 에이지테크 산업 생태계를 본격 조성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은 세계 8위 스마트 시티와 15분 도시 등 시니어 친화 기반 최적의 실증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부산에서 검증된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되고, 세계 시장으로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해 부산을 글로벌 에이지테크 허브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영주시, '8·15광복쌀' 첫 모내기 행사

영주시는 지난 27일 안정면 오거리 최이한 농가 논에서 '2026년 8·15광복쌀 재배단지 첫 모내기 행사'를 열었다. 시는 지역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으로 광복쌀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하동군

내달 '야생차문화축제' 개막

'차오르는 설령, 하동에서'를 슬로건으로 내건 제29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가 오는 5월 1일부터 5일까지 열린다.

대한민국 대표 차(茶) 축제로 자리매김한 이번 행사는 전통 문화와 미래 기술, 글로벌 미식, 친환경 가치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하동야생차박물관에서는 송·고려시대 다 도구 등 120여 점을 특별 전시해 동아시아 차 문화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

글로벌 미식 프로그램도 마련되며, 축제 기간에 어린이날이 포함된 만큼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도 강화됐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울산시

'시립아이돌봄 범서센터' 개소

울산시가 공공 돌봄 기반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울산시는 27일 울주군에서 '울산시립아이돌봄 범서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김두겸 시장을 비롯해 시의장과 시의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범서센터는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발생 시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되는 공공 돌봄시설이다.

센터는 6월 1일까지 영아·유아·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단계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부산시설공단

'새모난 봄, 네모난 책' 운영

부산 도심 속에서 책과 자연, 휴식을 한번에 즐길 수 있는 이색 야외도서관이 시민들을 찾아온다.

부산시설공단은 4월 29일부터 5월 25일까지 부산복합문화공간새모야외계단광장에서 '새모난 봄, 네모난 책'을 운영한다.

동삼해수전을 배경으로 계단형 광장을 활용해 조성된 이번 야외도서관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고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획됐다.

현장에는 약 1500권의 도서가 비치되며 별도의 대출 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전남도, 지역산업 위기대응 팔 걷어

철강·금속분야 42개사 8억 투입 수출기업 1000만원 물류비 지원

전남도가 글로벌 경기 침체와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운 지역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2026년 지역산업 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대상기업 42개사를 선정해 본격 지원에 나선다.

지난 3월까지 사업 공고를 통해 광양만권 산업위기지역 철강·금속 분야 및 전·후방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 기업을 선정했으며, 총 8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분야별 기업 경쟁력 강화와 매출 회복을 위한 맞춤형 특화지원에 대응해스앤엠, 광양테크 등 12개 기업이 선정돼 ▲생산·가동 안정화 ▲기술·디지털 전환(DX) 고도화 ▲수주·사업화 지원 등에 기업당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제품 고급화 등 기업 수요에 맞춘 기술사업화 지원에 동양기업, 픽스 등 30

개 기업이 선정돼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인증 ▲지식재산(IP) 전략 수립 ▲마케팅 ▲상품기획 등에 기업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또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가중된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산업위기지역 철강 수출기업에 최대 1000만 원의 물류비를 긴급 지원하고 있으며, 수혜 기업 신청을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하고 있다.

전남도는 중동 상황에 따른 정부 추경에 국비 증액을 건의했으며, 반영 시 물류비 지원을 넘어 물류시스템 개선까지 광범위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광양만권 HRD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한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도 확대 추진하는 한편, 중기부의 추경에 반영된 수출 바우처,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주요 사업을 적극 안내해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경북도, '청년 인생설계 학교' 순차 운영

금융·재무 중심 교육 강화

경북도는 28일 칠곡을 시작으로 도내 9개 시군에서 '2026 청년발전소-청년 인생설계 학교'를 순차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모이는 현장을 찾아가 자기 이해와 진로 설계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미래 설계 역량을 키우고 지역 내 자립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는 특히 금융·재무 중심 교육이 강화됐다. 청년층에서 경제 지식이 자립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면서 관련 교육 수요가 증가했고, 기존 만족도 조사에서도 금융·경제 분야 확대 요구가 반영됐다.

프로그램은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 위주로 구성됐다. 주시 모의투자과 청년 통장·연금저축 활용법을 다루는 금

융 교육을 비롯해 연말정산 절세와 보험 보장 분석 등 경제 교육, 청약 전략과 부동산 계약서 이해, 디지털 행정서비스 활용을 포함한 자립 교육이 운영된다.

여기에 청년 CEO 공감 토크, 지역 봉사, 버스킹 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을 병행해 단순 교육을 넘어 참여자 간 교류와 커뮤니티 형성도 지원한다. 모든 과정은 참여자가 자신의 상황과 계획에 맞춰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업은 포항, 김천, 영천, 상주, 문경, 의성, 영덕, 칠곡, 예천 등 9개 시군에서 진행된다. 신청 방법과 세부 일정은 경북 청년발전소 인스타그램과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

창원시, AX 분야 200억대 수출 성과

하노버 메세 '창원 공동관' 운영

창원시가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세계 최대 산업 박람회인 200억대 수출 계약 성과를 거뒀다.

시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된 '하노버 메세(Hannover Messe) 2026'에 4회 차 '창원 공동관'을 운영하고 제조 AX 기업 4개사의 전시회 참가를 지원했다.

참가 기업 4개사는 전시 기간 수출 상담 42건·312억 원, 계약 추진 35건·203억 원의 실적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 대비 상담 2.5배, 계약 4배에 달하는 성과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참가 기업들은 유럽 글로벌 기업과 3건의 업무 협약(MOU)도 체결했다. 이플로는 스웨덴 A사와 '시제품 공급 및 양산' 상호 협력 협약을, 튀르키예 H사와 '소형 수전해 수소발전기 공동 개발' 협약을 각각 맺었다. 삼일테크는 독일 B사와 'CNC 코팅 및 조립 공정 기술' 상호 협력 MOU를 체결하며 독일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시는 이번 박람회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참가 기업별 상담·계약 후속 조치를 앞으로 5년간 지속 모니터링해 실제 수출계약 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5년간 우주·항공기업 지원 사업 추진

전남 고흥군이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의 조기 구축과 기업 유치에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나로우주센터 인근 약 46만 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이후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고흥우주발사체국가산업단지는 향후 발사체 기업 및 연관 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와 자립 기반 마련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근 우주발사 핵심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흥군은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우주·항공 기업을 대상으로 약 1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기술개발 단계부터 시제품 제작, 성능 검증,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입주 기업의 조기 정착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우주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과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를 목표로 중앙부처, 국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흥(전남)=양수녕 기자

K-팝·러닝 등... 편의점, '경험' 파는 특화매장으로 변신

이마트24 K-푸드랩, 관광객 겨냥 K-팝 아이돌 앨범·응원봉 판매 프리미엄 디저트로 MZ세대 공략 GS25·CU, 패션업계와 의류 선배 러너·야구팬 위한 공간 마련도

편의점이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공간을 넘어 특정 문화를 향유하고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체험형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과거에는 집 근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규격화된 매장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입지와 타깃 고객의 특성에 맞춘 이색 특화 점포가 업계의 생존 전략으로 부상했다.

28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편의점 업계가 친편일몰적이던 일반 매장에서 벗어나 특정 주제에 특화된 점포를 경쟁적으로 내고 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명동의 '이마트24K-푸드랩'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곳은 일반적인 편



K콘텐츠를 접목한 '이마트24 K푸드랩 명동점'에서 사람들이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마트24

의점 진열대 대신 K팝 아이돌 앨범과 공식 응원봉을 전면 배치했다. 특히 2층에 마련된 '라면 아카이브 월'은 170여 종의 라면을 벽면 가득 전시해 외국인들의 인증샷 명소로 거듭났다. 실제로 이 매장은 오픈 한 달 만에 기존 점포 대비 매출이 2.9배, 방문객 수는 3.2배나 급증했다

고 있다. 성수동의 '이마트24K-디저트랩'과 'CU 성수디저트파크점'은 프리미엄 디저트와 테라스 감성의 포토존을 앞세워 MZ세대를 공략 중이다. 특히 편의점 업계는 그간 보조 상품군에 머물렀던 의류 분야를 전략적 카테고리로 격상시켰다. GS25는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손잡고 전용 의류 라인업을 9000여 곳까지

확대했으며, CU는 '스타일 픽스'라는 콘셉트로 유명 스포츠 브랜드와 협업한 의류 특화점을 선보였다. 단순한 긴급 구매를 넘어 가성비 패션 채널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라이프스타일을 깊숙이 파고든 매장들도 눈길을 끈다. 여의도 한강공원 인근의 '러닝 스테이션'은 달리기 동호인들을 위해 무료 탈의실과 파우더룸, 물품 보관함을 갖췄다. 잠실야구장 근처의 GS25는 LG 트윈스 선수들의 락커룸을 재현한 디자인과 한정판 굿즈로 야구팬들의 필수 방문 코스가 됐다. 이러한 매장들은 고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자연스럽게 음료나 간편식 등 다른 상품의 구매로 이어지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편의점 업계가 이처럼 특화매장에서의 활을 거는 이유는 국내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국내 편의점 총 점포 수는 5만 3266개로 전년 대비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더

이상 점포 수를 늘리는 양적 성장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한 명의 고객이 방문했을 때 지출하는 평균 금액인 '객단가'를 높이는 질적 성장으로 전략을 급선회했다.

특화 매장은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된 시대에 오프라인 매장이 가져야 할 '방문 이유'를 만드는 작업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들이 단순한 구매 행위를 넘어 공간이 주는 가치를 중시함에 따라, 상권 특성에 최적화된 테마형 특화 매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 매장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은 '경험'이라면서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모습의 매장이 아니라, 철저하게 상권과 타깃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특화 매장이 편의점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찾잎·신선한 유제품... 본연의 맛으로 승부”

중 티 브랜드 '차지' 韓 상륙

내일 강남·신촌·용산 매장 동시 오픈 향후 로컬라이징 메뉴 순차 도입 예정 단기 마케팅 공세보다 내실경영 집중

글로벌 모던 티 브랜드 'CHAGEE(차지)'가 한국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며 국내 카페 업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CHAGEE 코리아는 28일 서울 강남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미디어 데이를 열고 브랜드 철학과 한국 시장 안착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좌현 대표(CEO)와 김정희 마케팅총괄(CMO)이 참석해 한국 고객들을 위한 차별화된 '프리미엄 티 경험'을 강조했다.

2017년 중국 윈난성에서 첫발을 댄 CHAGEE는 전통 차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급성장한 브랜드다. 엄선한 원차(原茶) 찾잎에 신선한 유제품을 조합해 블렌딩한 밀크티를 선보이며, 차 본연의 풍미와 품질에 집중하는 것이 특징이다.

◆ 강남·신촌·용산 3개 매장 동시 오픈

오는 30일 동시 오픈하는 3개 매장은 각기 다른 상권 특성을 공략한다. ▲브랜드의 정수를 담은 '강남 플래그십 스토어' ▲젊은 층과 소통하는 '신촌점'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이 교차하는 '용산 아이파크몰점'이 그 주인공이다.

특히 강남 플래그십 스토어는 한국 건축가 및 제니스 채(JaniceChae) 작가와



차지 강남 매장외관. /차지

의 협업을 통해 한국적 미학을 공간에 녹여냈다. 차마와 기와에서 영감을 받은 디테일과 실크로드를 형상화한 천장 디자인은 단순한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넘어 고객이 머무르며 차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한다.

이날 현장 질의응답에서 김좌현 대표는 한국 시장의 높은 진입장벽과 반증점서 등에 대해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김 대표는 "한국 시장은 수준 높은 카페 문화, 품질과 경험에 대한 높은 기준, 새로운 브랜드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시장이며 전략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자극적인 단맛보다 찾잎과 신선한 유제품의 조화를 통한 본연의 맛으로 승부할 것"이라며 "철저한 위생 관리와 직원 교육을 통해 한국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브랜드로 안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또한, 론칭 초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메뉴를 우선 선보이되 향후 한국 소비자의 입맛에 맞춘 로컬라이징 메뉴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도 설명했다.

◆ 이미 포화상태인데... 차 문화 선도할까

국내 커피전문점 수가 10만 개를 넘어서며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CHAGEE의 등장은 카페 시장의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CHAGEE는 단기적인 마케팅 물량 공세보다는 'Real Tea, Real Moments'라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품질과 서비스 중심의 내실 경영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정희 마케팅총괄은 "CHAGEE는 단순한 밀크티 브랜드가 아닌, 현대인의 일상에 여유를 더하는 새로운 티 문화를 제안하는 리더가 될 것"이라며 한국 시장에서의 성공을 자신했다.

등 주류 등 총 287개 브랜드가 입점했다.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까지이며, 연장 시 최대 2036년까지 가능하다.

이번 확대로 현대면세점은 인천공항 내 6개 면세 구역 중 3개(DF2·DF5·DF7)를 운영하게 됐다. 명품, 패션, 화장품, 주류 등 전 카테고리리를 모두 취급하는 사업자로 사업 범위를 넓혔다. /김서현 기자

CJ제일제당, 생분해성 종량제 봉투 제작

내구성 동일, 신축성 1.8배 뛰어나 중구청에 PHA 봉투 35만장 기부

CJ제일제당이 독보적인 발효 기술로 개발한 생분해성 바이오 소재 PHA를 활용해 종량제 봉투를 선보였다. 기존 플라스틱 봉투를 대체한 것으로, 앞서 선보인 빨대, 화장품 용기, 인조잔디 충전제 등에 이어 PHA 상용화 범위가 한층 더 넓어지게 됐다.

이번에 만든 PHA 종량제 봉투는 기존 종량제 봉투에 견줘 동일한 수준의 내구성(인장강도)과 1.8배 뛰어난 신축성(신장률)을 구현했다. 이에 쉽게 찢어지지 않고 많은 양의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담을 수 있다.

CJ제일제당은 이러한 결실을 나누기 위해 최근 중구청과 협약을 맺고 PHA 종량제 봉투 35만 장을 기부했다. 이 종량제 봉투는 도로 청소와 일반 가정에서 활용되도록 10리터와 20리터 2종류로 만들었다. 일반 가정용 봉투는 주민들이 캔, 유리병 등 재활용품을 동주민센터에 가져오면 교환해 주는 방식으로 배포된



CJ제일제당-중구청 업무 협약식에서 (왼쪽부터)정혁성 CJ제일제당 BMS 본부장, 김길성 중구청장과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CJ제일제당

/신원선 기자 tree6834@

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는 동시에 자원순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PHA는 사탕수수나 같은 식물 유래당을 먹고 자란 미생물이 발효공정을 통해 만들어내는 소재다. 화학 공법을 통해 생산되는 석유계 플라스틱에 비해 유가, 공급 부족 등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특히, PHA는 토양은 물론 바닷물에서도 생분해되는 친환경 소재로 전 세계에서 소수의 업체만이 대량생산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CJ제일제당이 유일하다.

GS25, IP 제휴상품 4종 100만개 판매

흑백요리사·플레이브 등과 협업

GS25가 올해 1분기 출시한 IP 제휴상품 4종이 모두 100만 개 이상 판매되는 성과를 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상품들은 인기 콘텐츠나 캐릭터와 협업한 상품이다.

이들 상품은 GS25 앱 '우리동네GS' 인기 검색어 상위권에도 장기간 이름을 올리며 관심을 모았다. GS25는 콘텐츠와 연계된 소비가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주요상품으로는 '흑백요리사' 간편식 시리즈,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 협업

상품, 유튜버 썬양과 협업한 '대식가 시리즈', '해자로운 빵 시리즈' 등이 있다.

'흑백요리사' 간편식 시리즈는 500만 개 이상 판매되며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최강록 셰프 협업 상품은 160만 개가 판매됐다.

플레이브 협업 상품은 누적 판매량 120만 개를 넘어섰으며, '대식가 시리즈'와 '해자로운 빵 시리즈'도 각각 100만 개 이상 판매됐다.

GS25는 IP 협업 상품이 단순 판매를 넘어 콘텐츠 소비로 확장되고 있다고 보고, 관련 상품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현대免税, 인천공항 DF2 구역 운영 시작

전 카테고리 모두 취급

현대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내 DF2 구역(화장품·향수, 주류·담배) 운영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기

존 DF5·DF7(명품, 패션·잡화)에 이어 주요 카테고리를 모두 갖추게 됐다.

DF2 구역은 약 4571㎡ 규모로, 샤넬 뷰티, 디올, 에스티로더 등 화장품·향수 브랜드와 발렌타인, 조니워커, 헤네시

K-제약·바이오, '전주기 통합 생태계'로 글로벌 정조준

바이오 코리아 2026 개막

신약 개발·임상·투자 등 전 과정 빅파마들, '중간 근육' 부족 지적 데이터 대응 능력·신뢰 확보 필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과를 가늠할 핵심 역량으로 '통합 생태계 조성'이 구체화되고 있다.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과 공간을 제공하는 단계에서 기업 스스로 임상·투자·생산·글로벌 사업화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자생적 클러스터의 필요성이 커졌다. 제약·바이오 혁신 과정에서 고질적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연구와 사업화 사이의 단절을 극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28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에서 '바이오 코리아 2026'이 막을 올렸다. 이번 행사는 '혁신과 돌파, 더 나은 미래로'를 주제로 열려 K제약·바이오의 체질 개선을 예고한다.

개막날 첫 세션이 던진 화두는 '민간 주도형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이다.

차바이오그룹은 올해 4분기 경기 판교에 선보일 예정인 'K-Bio CIC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중심으로 K바이오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 코리아 2026' 개최식에서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왼쪽에서 열 번째),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왼쪽에서 열 두 번째) 등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래를 제시했다. 초기 R&D부터 임상까지 연구 환경을 유연하게 뒷받침하는 동시에 연구자, 창업가, 투자자, 대기업이 상시 교류하는 것이 특징이다.

차바이오그룹 허영진 실장은 "이제는 글로벌 상업화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미국 케임브리지 혁신센터(CIC) 운영 노하우를 적극 도입해, 입주와 동시에 독립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글로벌 투자자, 빅파마 등과 소통하는 네트워크를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CIC는 미국 보스턴, 독일 베를린, 일본 도쿄 등 전 세계 10개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연계하며 바이오 기업의 성장과 투자유치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바티스, 베링거인겔하임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의 실질적인 조언들도 이어졌다.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파마 간 협력 과정에서 스타트업의 한계가 지적됐다. 한국노바티스 김원필 전무는 "한국은 초기 시드 펀딩은 활발하지만 임상과 상업화 사이에서 '중간 근육'이 부족하다"며 "빅파마는 '데이터가 잘 나올 것 같다'는 정확적 설명이 아니라 실험 결과, 독성 수치 등을 원한다. K-Bio C

IC와 같은 플랫폼이 실험과 검증을 체계적으로 이뤄내는 '품질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국내 기업이 데스밸리(죽음의 계곡)를 넘기 위한 진단에서도 데이터 기반 신뢰가 강조됐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한정현 전무는 "전문적인 데이터 대응 능력을 갖춘 생태계 안에서 글로벌 기준에 맞는 수준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며 "빅파마가 찾는 타겟과 스타트업의 개발 단계가 완벽하게 맞을 때 빅 딜이 성사된다"고 밝혔다.

한국이 아시아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가 간 경계를 허문 한·중·일 협의체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차바이오그룹 양은영 사업총괄 부사장은 "한국의 빠른 실행력과 임상, 생산, 제조, 중국의 개념 증명(POC), 일본의 기초연구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등 아시아가 한 팀이 된다면 거대 질환 시장과 환자를 보유한 아시아가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지형도를 바꿀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오코리아 2026'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충북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협력한다. 전 세계 59개 국가 775개 기업이 참가해 최신 지견을 나눈다.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개최사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환경에서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가 자본과 규제외의 한계를 넘어 투자와 사업화 더 나아가 글로벌 진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술과 산업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간의 연결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바이오코리아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셀트리온 앵토즈마, 日서 퍼스트무버 출시

자가면역질환 시장 공략 강화 포트폴리오 총 4종으로 확대

셀트리온은 일본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앵토즈마'를 '퍼스트무버'(First Mover)로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앵토즈마는 지난해 9월 일본 후생노동성(MHLW)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한 이후 약 7개월여 만에 출시가 완료됐다. 셀트리온은 허가 당시 류마티스관절염(RA), 소아기 특발성 관절염(JIA), 케슬만병(CD), 사이토카인 방출증후군(CRS) 등 오리지널 의약품이 보유한 주요 적응증에 대해 승인을 획득했다.

셀트리온 일본 법인은 앵토즈마를 직접 판매할 예정이며, 기존 제품을 통해 축적한 영업 노하우와 공급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 조기 안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셀트리온 일본 법인은 앵토즈마 출시 전 열린 '제70회 일본 류마티



셀트리온 앵토즈마

스학회'에서 의료진을 대상으로 제품 관련 학술 정보를 제공하고,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품의 특성을 소개해 의료진의 관심을 높였다.

셀트리온은 일본 자가면역질환 시장에서 안정적인 판매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렘시마'와 '유프라이마'는 일본에서 각각 44%, 19%의 점유율(IQVIA 및 시장 데이터)로 처방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출시된 '스테키마' 역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셀트리온은 4종으로 확대된 자가면역질환 제품 포트폴리오를 활용, 현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3월 일본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한 '옴리클로'는 하반기 현지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며, '렘시마SC'도 일본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자가면역질환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다양한 치료 옵션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다수의 치료제를 보유할 경우 환자별 치료 상황에 보다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질환에 대한 전문성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앵토즈마 출시로 일본 내 자가면역질환 제품 포트폴리오가 총 4종으로 확대된 만큼, 제품 간 시너지와 사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제품 판매를 통해 축적한 경험과 영업 기반을 활용해 앵토즈마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일본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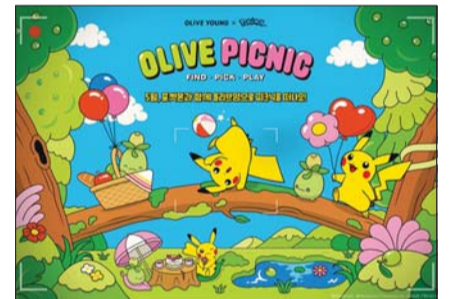
포켓몬과 만난 올리브영, 고객몰이 나선다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고' 도입

CJ올리브영이 오는 5월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포켓몬과 협업한 대규모 행사를 펼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세대와 국경을 아우르는 팬덤을 보유한 글로벌 메가캐릭터인 포켓몬의 30주년과 가정의 달을 함께 기념한다.

올리브영은 전국매장을 연계해 하나의 거대한 체험의 장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포켓몬과 K뷰티를 동시 경험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우선 올리브영N 성수 매장에서 '포켓몬 메가페스타 2026'를 진행한다. 포켓몬 30주년 파티를 주제로 다양한 팝업 공간을 꾸밀 계획이다.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고를 도입해 '포켓몬 고 서울 스탬프챌린지'도 운영한다. 포켓몬 고 앱을 실행하고 올리브영N 성수 등 해당



'올리브영X포켓몬' /CJ올리브영

매장을 방문해 스탬프를 찍으면 된다. 이와 함께 주요 타운 매장을 포함한 전국 거점 매장 13곳에서는 매장 내 스탬프챌린지, 포켓몬 응원 메시지 영수증, 포켓몬 굿즈 증정품 등을 마련한다.

매장 곳곳에 포켓몬세계관을 적용해 쇼핑의 재미를 더한 것도 특징이다. 올리브영을 상징하는 올리브와 닮은 포켓몬 '미니브'를 활용했다.

/이청하 기자

지엔티파마, 넬로넨다즈 글로벌 임상 가속

中 휘유와 뇌졸중 치료제 생산

지엔티파마는 중국 쓰촨 휘유 제약(Huiyu Pharmaceutical)과 뇌졸중 치료제 신약 후보물질 '넬로넨다즈' 동결건조 주사제의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cGMP)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휘유 제약은 향후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다국적 임상 3상(임상명: 'RENEW')에 사용될 넬로넨다즈 동결건조 주사제의 cG

MP 생산을 맡게 된다.

지엔티파마는 연내 글로벌 파스트트랙 진입을 위한 행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미국 식품의약품(FDA), 유럽 의약품청(EMA),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등에 넬로넨다즈의 혁신치료제 지정(BTD) 신청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미 허가를 받은 국내 임상을 연내에 선도적으로 개시하고 해외 임상시험계획(INN) 신청도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 미국, 유럽연합(EU), 중



지엔티파마 뇌졸중 치료제 '넬로넨다즈'

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로 임상 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세계 뇌졸중 협회(WSO)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500만 명이 뇌졸중으로 영구적인 장애를 겪고, 700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세경 기자

여름 야구장 필수템... 마데카 KBO 에디션

동국제약, 쿨링패치 선보

동국제약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업해 '마데카 쿨링패치 룬 KBO 에디션'과 '마데카 썸머 향 패치 KBO 에디션'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마데카 쿨링패치 룬 KBO 에디션'은 폭염 속 야외 관람 시 활용 가능한 냉각 기능을 갖췄다. 기존 제품보다 대폭 길어져 약 44cm로 설계했다. 목 전체를 감싸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자외선 차단 원단을 적용해 야외 응원 시 햇빛 노출 부위를 효과적으로 보호해 준다.

'마데카 쿨링패치 KBO 에디션'은 피



한국야구위원회(KBO) 소속 10개 구단별 '마데카 썸머 향 패치' /동국제약

부에 직접 닿는 즉시 하이드로겔 시트가 피부 온도를 빠르게 완화해 주는 제품이다. 이마, 팔, 뒷목 등 부착하면 된다. /이청하 기자

AMERICCINO

Original Espresso Cream Coffee



아메리치노 라떼
Americcino Latte



아메리치노
(오리지널 / 스위트)
Americcino (Original / Sweet)





수은,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라운드테이블 개최
한국수출입은행은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미국·베트남 등 11개국 주한 외국 대사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수해 수호볼드 주한 몽골 대사,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 에드윈 길 멘도자 주한 필리핀 부대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출입은행



기보, AX 기반 디지털 정책금융기관 도약 선언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27일 부산 본점에서 '차세대 프로젝트 성과보고 & 아이시티(ICT) 미래비전 선포식'을 열고 인공지능 전환(AI) 기반 디지털 정책금융기관으로의 도약을 공식 선언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앞줄 가운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



제약바이오협회, 韓-스웨덴 협력체계 구축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7일 서울 서초동 소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주한스웨덴무역투자대표부, 스웨덴 바이오와 함께 4자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왼쪽에서 세 번째) 등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소공연, 국내 최대 직능단체 외식업중앙회 가세
소상공인연합회는 외식업중앙회가 공식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회원 100만명 시대를 연 소상공인은 국내 최대 직능단체인 외식업중앙회의 가세로 소상공인 대표단체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왼쪽)이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SK이노베이션, 백혈병어린이재단 3억 기부
SK이노베이션은 서울 나눔소아암센터에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백혈병·소아암 아동 치료비 지원' 기부금 3억원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충식 SK이노베이션 부사장(왼쪽)과 서선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사무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레드닷 어워드' 석권... 최고상 등 16관왕

'익스프레시브 디자인' 인정 받아 OLED TV 'S95H' 최고상 수상

삼성전자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6'(Red Dot Design Award 2026)를 휩쓸며 디자인 경쟁력을 재확인했다.

삼성전자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6'에서 최고상인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2개를 포함해 총 16개의 본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1955년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디자인 센터 주관으로 시작해 현재는 세계적인 권위의 국제 디자인상으로 자리 잡았다. 수상작은 기능성·심미성·혁신성·지속 가능성 등 다양한 평가 항목과 기준을 통해 선정된다. 시상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6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OLED TV 'S95H'. /삼성전자

▲제품 디자인 ▲디자인 콘셉트 ▲브랜드와 커뮤니케이션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삼성전자는 '제품 디자인' 부문에 출품한 16개 디자인 모두가 본상을 받았다. 사람 중심의 새로운 디자인

방법론인 '익스프레시브 디자인'(Expressive Design)을 반영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S95H'와 비스포크 AI 세탁기 시리즈로 제품 디자인 부문에

서 최고상을 수상했다. S95H는 전면 에 메탈 소재의 은색 프레임 적용해 초슬림 OLED 화면이 본체 위에 떠 있는 듯한 디자인으로 수상에 성공했다. 비스포크 AI 세탁기전 시리즈는 각 제품이 가진 고유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통일감 있는 디자인을 적용한 것이 호평을 받아 최고상을 받았다.

마우로 포르치니 삼성전자 DX부문 최고 디자인 책임자(사장은) "사람의 정체성과 감정, 다양성을 반영하는 디자인을 추구한다"며 "앞으로도 기능 구현을 넘어 의미 있는 연결과 목적을 가진 디자인으로 사람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겠다"고 말했다. /구병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LG상록재단, '3대가 걷는 화담숲길' 가족 초청 행사

내달 4일부터 사전예약

LG상록재단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3대가 함께 걷는 화담숲길'을 주제로 가족 초청 행사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조부모부터 손주까지 3대가 함께 자연 속에서 교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화담숲이 지닌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살려 가족 간 소통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화담'은 이 숲을 조성한 고(故) 구본무 회장의 아호이기도 하다.

행사는 내달 4일부터 사전 예약을 통해 선정된 3대 가족 약 2500명을 대



'3대가 함께 걷는 화담숲길' 포스터. /LG상록재단

상으로 무료 진행된다.

화담숲은 전 구간을 완만한 경사의 무장애 데크길로 조성해 유모차와 휠체어 이용자도 편안하게 이동

할 수 있다. 모노레일도 운영돼 이동이 어려운 구간까지 쉽게 둘러볼 수 있다.

참여 가족들은 복합문화공간 '화담채' 전시 관람을 시작으로 가족사진 촬영, 숲속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된다. 재단은 기념품으로 수국 화분을 제공해 가족들이 일상의 공간에서도 추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LG상록재단 관계자는 "화담숲은 자연을 감상하는 공간을 넘어 사람들이 함께 머물며 소통하는 공간을 지향해왔다"며 "세대가 함께 걷고 머무며 추억을 쌓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병영 기자

환경산업기술원 남광우 신임원장 취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남광우(사진) 전(前) 환경보전협회(현재 한국환경보전원) 상근 부회장이 7대 원장으로 부임했다고 밝혔다.

남 원장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과 한국고용정보원 전략기획팀장, 성남시민모임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남 원장은 24일 취임사에서 "환경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시장과 산업으로 확산시켜 친환경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기후후의 정책목표인 탈탄소 녹색번영 선도국가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산업기술원 조직 관련해서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저평가 우량주"라고 평가했다. 이어 "젊고 활력 있는 조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업영역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다시 도약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남 원장은 "새로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미래를 그리기 위해 나부터 책임 경영과 조직문화 쇄신에 선순부하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유한재단, '유일한 장학금 수여식' 개최

전국 43개 대학 147명 선발

유한재단은 28일 서울 동작구 유한양행 본사에서 '2026년 제3회 유일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유일한 장학금은 대학원 석사 및 박사 과정에서 학업과 연구에 전념하는 인재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문적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장학금 수혜자는 전국 43개

대학에서 선발된 147명이다.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미래 학문과 산업을 이끌 인재들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 장학생 중 36명(약 25%)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다문화 가정 학생과 함께 선발됐다. 유한재단은 장학사업의 포용성과 국제적 확장성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목 유한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일한 장학금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며 "열렬사유



'2026년 제3회 유일한 장학금 수여식'에서 장학생과 유한재단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유한재단.

일한 박사의 정신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에 환원하는 삶을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을 이어가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넥슨, 내달 12일 '넥슨뮤지엄' 개장

넥슨컴퓨터박물관 리브랜딩

넥슨은 28일 넥슨컴퓨터박물관을 '넥슨뮤지엄'으로 리브랜딩한다고 밝혔다. 약 4개월간의 리뉴얼을 거쳐 내달 12일 재개장한다.

넥슨뮤지엄은 기존 기술 역사 중심의 전시에서 벗어나 넥슨의 30년 헤리티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게임

브랜드 거점으로 재편한다. 게임을 '플레이어가 함께 만드는 문화'로 정의하고 이용자 경험 중심의 전시 구조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전시는 한국 온라인 게임 산업의 흐름과 넥슨 주요 IP의 역사를 아우른다. '바람의나라'를 비롯해 '카트라이더',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던전앤파이터' 등 40여 개 이상의 IP

를 한 공간에서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특히 관람객이 넥슨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다양한 게임에 분산된 자신의 플레이 기록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인화 기능을 제공한다.

리브랜딩과 함께 새로운 로고도 공개한다. 현실과 가상이 교차하는 순간을 형상화해 넥슨 CI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했으며, 박물관 입구의 '문'을 상징해 새로운 게임 경험의 시작을 의미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생활교통복지과장 김종성 △광역급행철도기획과장 박우성

◆리가캠바이오사이언스 ◇승진 △회장 김용주 △대표이사 사장 박세진 △상무 옥찬영

부음

▲박우훈씨 별세, 박성각·박성만(경북도의회 의장)·박복란·박용란씨 부친상=28일 오전, 명품 장례문화원 2층 VIP실, 발인 30일. 054-634-4444
▲김성달씨 별세, 김수진(서산시도지관리과 지적민원팀장)씨 부친상=28일, 보령SH수협 장례식장 백혈실, 발인 30일. 041-932-4004

NARA CELLAR

역시! 몬테스



결국! 몬테스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 2년 연속 1위**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일상에서 마주한 한일 관계의 변화



김양평의
일본 이야기

일본 도쿄 시부야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차로가 있다. 사방에서 신호가 바뀌면 최대 3천 명이 동시에 길을 건너는 장면은 장관을 이룬다.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고 평소에도 많은 인파가 오가고 있어 일본 뉴스의 단골 배경으로 자주 등장한다. 주위에는 충전 하치코 동상도 있어 외국인 관광객도 꼭 한 번은 들르는 명소로도 자리를 잡았다. 며칠 전, 필자는 그 교차로 정면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을 마주했다.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입구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매장 안에는 굿즈를 고르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곳은 바로 BTS의 팝업 스토어였다. 그 순간 '요즘 일본인들은 한국 제품을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선입견이 흔들렸다. 역사문제와 정치적 갈등이 반복되면서 양국은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그 여파로 인해 소비 문화에도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부야 한복판에서 목격된 풍경은 반드시 그렇지 않은 않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었다.

필자의 기억 속에 한일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기는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은 역사상 처음 두 개의 나라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 스포츠 대회로 한일 양국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월드컵 공동 개최가 성사되기 전에 이미 도쿄의 코리아타운이라 불리는 신오쿠보에는 한국 음식을 맛보기 위해, 그리고 한국 연예인의 음반과 굿즈를 사기 위해 많은 일본인이 방문하고 있었다. 한일 관계 개선에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드라마 '겨울연가'였다.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를 통해 방송된 이 작품은 일본 사회에 '한류 열풍'을 본격적으로 일으켰고 한국 문화에 관한 관심을 대중적으로 확산시켰다. 문화 교류가 늘어나면서 경제로 이어졌고 민간 차원의 문화, 산업 협력이 활기를 띠었다. 하지만 영풍한 곳에서 이러한 흐름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다. 정치·외교 갈등이 심화되면서 양국 관계가 불편해지게 되었고, 그 여파로 인해 민간 영역의 교류도 위축되어 버린 것이다. 서로에 대한 거리감은 다시 커지게 되었고 자국적인 사건들이 하나, 둘 터지면서 그 간극이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다. 따라서 이번 시부야에서의 경험은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다. 그리고 다시 한번 둘러보니 BTS의 팝업 스토어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일본의 편의점에서는 한국 컵라면이나 음식 등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고, 신오쿠보 이외의 지역에서도 '한국 식품 전문점'이 눈에 띄었다. 과거에는 신오쿠보에 국한되어 있었던 한국산 상품들이 이제는 일상적인 소비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것이었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닐지도 모른다. 한국의 슈퍼에서도 이제 어렵지 않게 일본 제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정치·외교적인 갈등과는 별개로 민간 차원의 문화와 소비 교류는 이전보다 더 넓고 깊게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다. 필자가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정치·외교 분야의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일상 속 교류는 이미 국경을 넘어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었다. 물론 한국과 일본 관계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역사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속적인 대립 관계만이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다. 정치·외교 분야의 냉기를 빠르게 전환할 수는 없더라도 서로의 문화와 일상을 공유하며,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한일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산연연구원 선임연구원

산업이 계급을 가르는 시대



기지수첩
이현진
(정책사회부)

한 명품관 직원이 허름한 점퍼 차림의 손님을 무시한다. 그러나 점퍼 안쪽에서 SK하이닉스 로고가 드러나자 태도는 곧바로 바뀐다. "하이닉스님?" 쿠팡플레이 'SNL코리아'의 한 장면이 화제다. SK하이닉스 직원이 하나의 밈처럼 소비되는 것은 단순히 성과급이 역대급으로 예상되기 때문만은 아니다. SK하이닉스 로고가 더 이상 회사명이 아니라 보상의 크기를 짐작하게 하는 상징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같은 직장인이라도 어느 산업, 어느 회사에 들어갔느냐에 따라 삶의 수준, 이른바 '급'이 달라지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업이 성과를 낸 만큼 임직원에게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그 격차가 개인의 노력 차이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인공지능 수요와 반도체 호황은 일부 산업에 막대한 보상을 몰아주고 있다. 반대로 다른 산업의 노동자는 비슷한 시간을 일해도 그만한 상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청년들에게 취업은 더 이상 직무 선택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산업의 호황에 올라타느냐가 커리어의 출발선을 가르는 문제가 됐다. 개발자든 사무직이든, 직무가 같아도 반도체·AI처럼 돈이 풀리는 산업에 있느냐에 따라 보상과 평판은 달라진다. '하이닉스님'이라는 농담이 마냥 가볍게 들리지 않는 이유다. 직무보다 산업, 노력보다 시장의 파도가 개인의 몸값을 먼저 결정하는 사회의 단면이기 때문이다.

격차를 모두 없앨 수는 없다. 없애는 것이 정답도 아니다. 그러나 격차를 줄일 기회가 줄어들어 가는 것은 다른 문제다. 산업 간 이동이 어려워지고, 재교육의 기회가 부족하고, 중간 수준의 일자리가 약해지면 격차는 곧 계급이 된다. 격차가 커질수록 개인의 노력만으로 그 차이를 따라잡기 어렵고, 산업의 흥망이 개인의 삶까지 과도하게 좌우하는 구조로 굳어지기 쉽다. 성과는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의 호황이 일부에게만 계층 이동의 기회로 작용하고, 그 밖의 일자리에선 삶의 전망이 희미해지는 구조는 경계해야 한다. 직무 전환 교육과 산업 이동 지원, 중간소득 일자리 보호가 더 촘촘해져야 하는 이유다.

lhj@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9일 (음 3월 13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 48년생** 너무 거만하지 마세요. **60년생** 일을 적당히 처리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72년생** 이성과 다툼을 주의하세요. **84년생** 고민하던 이성문제가 해결의 길이 보입니다.
- 49년생**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61년생** 늘 명랑한 기분을 유지하도록 하세요. **73년생** 오래전부터 만나고 싶어하던 귀인이 찾아옵니다. **85년생** 삶을 좀 더 즐겁고 활기차게 살도록 하세요.
- 50년생**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됩니다. **62년생** 사치를 삼가하세요. **74년생** 이성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86년생** 주위사람에게 칭찬 또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 51년생** 어려운 시기가 예상됩니다. **63년생** 고생을 각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75년생**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게 좋을 것입니다. **87년생** 다툼을 주의한다면 결과가 좋습니다.
- 52년생** 좀 기다리고 행동하세요. **64년생** 신중하게 생각하고 실천에 들어가세요. **76년생**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88년생**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 53년생** 동쪽에서 귀인이 찾아와 도움을 줍니다. **65년생** 신성한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77년생** 몸과 정신이 맑으면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89년생** 즐거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 54년생** 적극적으로 밀고 나아가세요. **66년생**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조심하세요. **78년생** 호흡기질환을 조심하세요. **90년생** 학업에 열정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 55년생** 어려운 때를 만나 길을 잃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67년생** 능력 있는 워킹맘을 만납니다. **79년생** 집에 있음이 좋을 것입니다. **91년생** 친구들과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 56년생** 잠든 사이에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해 있습니다. **68년생** 소인배와 함께 다니면 반드시 안좋은 일을 겪게 됩니다. **80년생** 의지를 확고히 할 때입니다. **92년생** 몸을 조심하세요.
- 57년생** 건강운이 길하지 않습니다. **69년생** 친구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81년생** 분명한 판단이 서지 않는 일은 추진하지 마세요. **93년생** 서쪽으로의 여행이 좋습니다.
- 58년생**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70년생** 어려운 고비를 넘깁니다. **82년생** 단합이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94년생** 몸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 59년생** 모든 사람이 나의 벗이 됩니다. **71년생** 모든일이 원만히 풀려 나갑니다. **83년생** 여행을 떠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95년생**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동쪽에 있습니다.



김상회의四季 수(數)의 비밀 ②

사연인즉슨, 만며느리에게서 만며느리에게로 함은 전달되었다. 그런데 5대 손부에게 소강절선생의 예측대로 정말 역적 누명을 덮어쓰고 하옥되었다. 역적은 멸문지화를 입고 풍비박산이니 백방으로 구명할 길을 찾았으나 방법이 없다가 5대 손부는 갑자기 시어머니의 유언이 생 각났다. 달리다시피 하여 형조판서의 집에 당도하여 소강절 선생의 유품을 가지고 판서를 뵈고자 청했다. 형조 상서는 그 말을 듣고서는 이미 작고한 지는 오래되었으나 그 명망 높은 대 정치가요 문장가이자, 주역에 달통하여 천지의 돌아가는 운수와 인간의 길흉화복을 꿰고 있던 선생의 유품을 방안에 앉아서 받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하여, 마당까지 나아가 돛자리를 깔게 하고 한쪽 무릎을 꿇고서 그 유품을 받았다. 이게 웬일인가, 유품을 받는 순간 자기가 방금 앉아 있던 사람재가 그대로 폭삭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라 급히 일어보았다. 그러나 함 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글자가 쓰인 하얀 창호지 한 장만 들어있었다. 재빨리 펼쳐 보니, '네가 대들보에 깔려 죽을 것을 살려주니, 나의 5대 손을 구해 달라.' (活汝壓樑死 救我五代孫) 라고 씌어 있을 뿐이었다. 형조판서는 재수사를 명하여 소선생 5대손의 무죄함을 기러냈고 생명과 가문도 보전하게 된다. 선천상수학의 원리를 해석이 난해할 수도 있는 주역의 이치와 연결하여 매화역수리는 독특한 수리 역학이다. 수리를 우주와 세상의 이치를 보고 밝히는데 통달한 소강절선생은 후손의 운명은 물론 그에 얽힌 운수 또한 알 수 있었던 것이니 이는 기적을 넘어 神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의 이치는 수(數)로 나타낸다고 했다. 고대 서양에서는 피타고라스가 대표적인 인물이고 주역의 체계가 잡힌 동북아문화권에서는 복희씨가 그러하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과난이도의 월드피드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4	3	6	8
7				9	
	5		1		4
8			9	5	
	7	5			2
4		3		8	
	6				7
3	2		6	7	1

6	1			4	8	
				4	3	9
9	4					
3			2			
	7		5		9	
			8		1	
				6	2	
6	1	5				
		8	3		5	7

6	7	1	8	2	9	5	2	8
2	8	2	9	6	7	9	8	1
9	8	9	1	8	2	2	6	7
2	1	8	7	9	9	8	2	6
8	6	7	2	8	1	2	9	5
9	9	2	6	2	8	1	7	8
7	2	8	2	1	6	8	9	9
1	2	6	9	9	8	7	8	2
8	9	9	8	7	6	1	2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0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07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상선 문예리감명을 준수합니다.

학생 건강 ‘빨간불’... 비만을 30% 육박, 시력 이상 늘었다

교육부, 2025년 학생 건강검사 읍·면 학생 비만을, 도시보다 높아 총치 비율 16.3%로 2.4%p 감소

학생 비만이 30%에 육박하며 수년째 고착화된 가운데, 시력이 나쁜 학생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읍·면 지역 학생의 비만이 도시보다 여전히 높아 건강 격차도 지속되고 있다.

교육부는 28일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중·고 1131개교를 표본으로 선정해 신체 발달과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향후 학생 건강증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학생 비만을 30%... 읍·면이 더 심각**
학생들의 키와 몸무게 등 전반적인 신체 발달 수준은 전년도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



ChatGPT로 생성한 ‘학생 건강’ 관련 이미지.

교 1학년 평균 키는 122.4cm, 4학년은 140.4cm, 중학교 1학년은 161.4cm, 고등학교 1학년은 173.0cm였다. 여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 120.8cm, 4학년 139.9cm, 중학교 1학년 157.4cm, 고등학교 1학년 161.3cm로 집계됐다. 몸무게 역시 큰 변화는 없었다. 남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 25.5kg, 4학년

39.2kg, 중학교 1학년 57.0kg, 고등학교 1학년 70.5kg이었다. 여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 24.1kg, 4학년 36.6kg, 중학교 1학년 50.7kg, 고등학교 1학년 57.1kg으로 나타났다.

비만군(과체중+비만) 비율은 29.7%로 2021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 학생 비만이 33.2%로 도시지역 29.0%보다 4.2%p 높았다. 다만 지역 간 격차는 전년(4.5%p) 대비 소폭 줄었다.

◆**시력 이상 학생 58%... 전년대 증가**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 시력 이상 비율은 58.25%로 전년(57.04%)보다 1.21%p 늘었다.

반면 구강검사에서 충치가 있는 학생 비율은 16.30%로 전년(18.70%)보다 2.4%p 감소했다.

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한 혈액검사에서 총콜레스테롤 17.28%, 중성지방 28.67%,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12.69% 등 정밀검사가 필요한 비율이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최고진 교육부 장관은 “각종 만성질환과 심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비만 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시력 이상 학생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건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통계 분석 결과 보고서는 29일부터 학생건강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교육부, 농어촌 특별전형 거주요건 완화

합격 후 거주 이전 ‘예외 인정’ 적극행정 조치·제도개선 시행

#A학생은 2026학년도 수시모집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에 합격한 뒤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해 고교 졸업 전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농어촌 특별전형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학 취소 위기에 놓였다.

교육부 이이철 규제의 형식적 적용으로 학생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행정 조치와 제도개선에 나선다.

교육부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자격요건과 관련해 대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 조치와 제도개선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하고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거주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등록한 학생이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해 고교 졸업일 이전에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이전했다가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과거에도 이 같은 사유로 입학이 취소된 일부 학생들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구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장기간 소송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겪고, 대학과 학생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 제도와 현실의 괴리로 인한 불편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올해 입시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된 점을 인식하고, 지난 9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피해 학생 권리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대학에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거주지 변경은 전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

관련 관례가 일관되게 피해 학생의 권리구제를 우선해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이번 적극행정위원회 권고 결정에 따라 올해 대학입시부터 대학 합격·등록 이후 이뤄진 거주지 이전에 대해서는 특별전형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은 불합리한 합격 취소 처분과 관련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최고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규정의 형식적 적용이 학생의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교육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학생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구제하고, 제도의 취지와 현실을 조화롭게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미숙아 의료비 최대 2000만원 지원

난청 보청기, 만 12세 미만 확대
기저귀·조제분유도 최대 24개월

서울시가 임신부와 영유아가정을 대상으로 한 모자보건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넓히고, 의료비 지원 한도는 높이는 방식으로 임신부터 출산·양육까지 전 과정을 강화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출생 체중에 따라 기존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선천성 이상 의료비도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됐다. 난청 영유아 보청기 지원 연령 역시 기존 만 5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까지 확대되며, 보청기 구입 시 개당 최대 135만원까지 지원한다.

저소득층 양육 지원도 유지·확대된다. 기저귀는 월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1만원을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특히 7월부터 장애인 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

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넓힌다.

질환 관련 지원도 이어진다.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질환 확진 시 특수분유 등 식이를 지원하고,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자(19세 미만)에게는 연 25만원 한도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신생아 난청 및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도 지속된다.

임산부 지원도 확대된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는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로 120만원 바우처가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의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원 확대와 함께 안내를 강화해 신청 누락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남양주시, 왕숙신도시 기업 재정착 돕는다

‘점프업 상생금융’ 업무협약 체결

남양주시는 27일 왕숙신도시 개발로 이전이 필요한 기업의 안정적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왕숙신도시 기업재정착 점프업 상생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토지보상금과 기업 이전 단지 분양가 간 격차로 자금 부담을 겪는 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활용한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조기 안착과 성장 기반 마련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주광택 시장을 비롯해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6개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참여 금융기관은 총 800억 원 규모의 협조융자를 지원해, 기업당 최대 30억 원의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시는 금융지원을 통해 금리 산정의



왕숙신도시 기업이전단지 상생금융지원 협약식 모습. /남양주시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부수거래 조건을 배제하는 현장 중심·기업 체감형 금융지원 모델을 구축했다.

/남양주(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40 | 해질 / 19:20

4월 29일(수) 음력 : 3월 13일

수도권 날씨 8 ~ 20°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4/20, 동두천 6/20, 가평 4/20, 파주 5/21, 서울 8/20, 양평 6/20, 용인 8/19, 수원 8/19, 평택 7/19, 인천 8/19, 백령도 9/1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미국·이란 ‘버티기 모드’...경제적 부담에도 평화협상 교착
▲이란, 원유 저장량 한계...페탱크 비릇 저장 수단 총동원 /사진 뉴시스

▲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계좌 신설...‘달러·위안·유로 받을 것’
▲아르헨티나, 영국에 ‘포클랜드 제도는 우리땅’ 도발

▲메르츠 독일 총리 “미국, 이란 지도부에 굴욕...단기간 종전 어려움”
▲아랍에미리트(UAE), 미국에 달러 통화스와프 요청



편의점, '경험' 파는
특화매장으로 변신
L1



Life

K-제약바이오
'전주기 생태계'로
글로벌 정조준
L2



“요리는 언어 넘어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도구”

속깊은 人터뷰

여경래 홍보각 총괄셰프

여경래 셰프가 말하는 요리 본질과 상생 레시피, “로봇이 워를 돌려도 사람 마음까지 움직일 수는 없으며 중식 미래는 한국적 담백함에 있다.”

1970년대 아날로그 시절부터 50여 년간 주방을 지켜온 사내가 있다. 워질 한 번에 시대의 풍파를 담아내고 칼질 한 번에 혼란을 썰어냈던 그는 이제 한국 중식의 산증인이자 대명사가 됐다. 넷플릭스 인기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를 비롯해 각종 미디어에서 대중과 소통하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여경래 셰프를 만났다.

최근 들어 외식 업계에서도 화두는 단연 '디지털 전환'이다. 첨단 인공지능 기술이 최적의 맛을 계산해 레시피를 쓰고 로봇 손이 팬을 휘두르며 대량 생산하는 '푸드테크'의 범람 속에서 그는 '인간과 기술의 상생'을 논하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대가의 품격은 화려한 기술이 아닌 시대 흐름을 읽는 안목과 세상을 향한 긍정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1970년대 주방서 단련한 워의 시간 시대 풍파를 건넌 칼끝의 내공

로봇이 워 돌려도 셰프마음 대체불가 SI 레시피 맛을 넓히는 상생의 도구

-인간 셰프만 지킬 수 있는 영역은

“요리의 가치는 명쾌하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입맛에 맞는 음식을 오랫동안 지켜내는 것이다. 기술은 그 과정을 돕는 수단일 뿐, 결국 음식을 먹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셰프의 몫이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로봇 역시 상생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인공지능으로 개발한 팜프잼을 활용한 중식 레시피를 제안받은 적이 있다. 사실 중식에서 팜프잼은 한국인이 선호하는 식재료는 아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제안한 조합으로 요리를 해보니 의외로 맛이 훌륭했다. 인간만이 가진 섬세함에 비하면 아직 부족해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이 본질적인 맛을 유지하는 데 쓰일 것이다.”

-나만의 요리 철학과 원칙이 있다면

“대만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화교 2세로 태어났지만 스스로를 ‘뺏속까지 한국인 입맛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함에 의심이 없다. 여러 나라 음식을 겪어보고 해외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다양한 식재료를 접할 때마다 이 음식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잘 맞을까를



여경래 위플이앤디 중식당 홍보각 총괄셰프.

/강성진 기자 ksji@

가장 먼저 고민한다.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소스를 응용해 이색적인 맛을 내려고 노력하거나 반대로 생소한 소스를 접목하더라도 우리 입맛에 맞는 음식을 개발했다. ‘한국인 입맛으로의 재해석’이 요리 인생의 핵심 원동력이다.”

-‘K중식’의 경쟁력과 잠재력은

“과거부터 최근까지 대중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중식 또한 K푸드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이 밑그림이 ‘한국형 중식의 세계화’라는 큰 그림으로 완성되길 바란다. 중식이 한국에서 인기 요리로 자리잡기까지 그 역사는 100년이 넘는다. 한국 중식은 절대 한순간의 인기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화교 중심의 중국 음식이 시장을 주도했지만 현재는 중국 음식점 조리사의 95% 이상이 한국인이다. 한국인 조리사들이 중식 요리에서 입지를 넓히면서 기존의 기름진 중식이 전 세계에서 가장 담백하고 깔끔한 중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한국인 기호에 맞춰 발전해 ‘K중식’이 된 것이다. K팝, K푸드와 같은 한류 돌풍에 K중식의 열기를 더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해야 할 때다.

실질적으로 후배들에게 해외 진출을 강

력히 권한다. 특급 호텔을 비롯해 국내 시장의 좁은 문에서 도전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인 조리사의 저력을 바탕으로 크고 작은 글로벌 무대를 겪어봐야 한다. 낯선 땅에서 음식, 사람, 언어, 문화 등 다방면을 부지런히 경험할 때 얻는 배움이 있다.”

- 후대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덕목은

“어느 분야에서든 우선 최선을 다 해보는 과정 자체에 삶의 의미가 있다. 빠르게 성공하려고만 하면 반드시 중간에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다.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하며 무엇보다 ‘급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좋은 스승을 따라야 한다. 돌이켜 보면 처음 일을 시작한 70년대는 요리책 한 권, 레시피 하나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고 절실함을 느끼게 했다. 또 15살 어린 나이에 마주한 당시의 주방 환경은 거칠었다. 방황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자칫 나쁜 길로 빠지기 쉬운 유혹도 많았다.

제 인생의 ‘천우신조(天佑神助)’는 예술에 가까운 기술을 가진 스승과 실력 있는 선배들을 만난 것이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꿈을 가졌고 1시간씩 일찍 출근하며 성실하게 쫓다보니 기술자의 길이 열렸다.

또 어떤 환경에서도 단점보다 장점을 보도록 연습했다. 내성적인 성격을 고치기 위해 사람 많은 곳에서 크게 웃어 보는 훈련도 해 봤다. 지금의 미소도 사실은 수만 번 연습의 결과물이다. 이런 긍정 마인드는 요리에도 투영된다.”

낮선 재료를 풀어낸 K-중식 재해석 익숙한 소스로 빚어낸 담백한 풍미

후진 양성으로 잇는 마지막 레시피 반세기 내공을 이정표로 남기는 길

-화교사회 발전시킨 문화의 힘, 요리

“요리는 언어를 뛰어넘어 마음을 전한다. 한국인들이 중식을 오랫동안 좋아해 주신 덕분에 외식업 발전에도 꾸준히 기여할 수 있었다. 화교 사회와 한국 사회가 요리를 통해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과정은 지금도 진행 중인 긍정적인 과도기라고 생각한다.”

-여경래의 상생 레시피, ‘후진 양성’

“그동안 바쁘게 달렸고 현장에서 은퇴를 고려할 나이가 됐다. 비로소 이제야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를 정리하며 머릿속을 비우는 여유를 가져보고 싶다. 자서전 같은 기록도 남기고 싶고 어린 시절 꿈꿨던 만화가의 감성도 되찾고 싶다.

하지만 결국 나야가야 할 방향은 ‘후진 양성’이다. 그동안의 시행착오와 기술이 후배들에게 올바른 이정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창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중식당 홍보각의 메뉴 (위에서부터) 모자새우, 불도장, 삼선짜장면.

메트로 한줄뉴스



▲한국사격, 오예진·반효진 등 아시안게임 국가 대표 확정
▲개막 한 달 지난 KBO... ‘3강 6중 1약’ 구도 지속
/사진 뉴시스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고우석, 호투에도 ‘노 콜업’... LG 복귀설도
▲축구협회, 정몽규 징계요구 취소소송 패소... 이사회 앞당겨 개최

▲여자배구 도로공사, ‘9년 일본대표팀’ 우치세토 마미 영입
▲LIV골프, 6월 뉴올리언스 대회 연기 전망... 재정 위기설 재부상